2025.12.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최 종 보 고 서

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제출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본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서대문구의회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세부 내용 ····· 2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체계 ····· 3
1) 연구의 범위 및 기간 ····· 3
2)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 4
(1) 연구 방법 ····· 4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4

Ⅱ. 무장애 환경의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 6
1. 무장애 환경에 대한 개념 및 선행조건 ····· 7
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시설의 개념 이해 ····· 7
2) 무장애 도시 구축이 중요한 선행조건 ····· 11
3) 무장애 도시의 개념과 특징 ····· 11
2. 무장애 환경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체계 분석 ····· 13
1) 무장애 도시의 법률적 근거의 변화 ····· 13
2) 무장애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기반의 세부 분석 ····· 1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한 물리적 무장애 환경의 구축 ····· 15
(가) 교통약자의 정의와 이동권의 법적 지위 ····· 15
(나) 이동편의시설의 기술적 기준 및 대상 시설 분석 ····· 16
(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의무 도입 메커니즘 ····· 16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행정적 실효성 ····· 17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권리적 해석 17
(1) 차별의 금지와 '정당한 편의'의 정의적 확장 ····· 17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무장애 환경 분석 ····· 18
(3) 사법·행정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환경 ····· 19

# CONTENTS

4) 「공공디자인법」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적 융합 ····· 19
(1)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원칙과 시행 체계 ····· 19
(2) 공공 시설물에 대한 포용적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 20
5)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장애 관광(Accessible Tourism) 체계 분석 ·· 21
(1) 무장애 관광의 법적 정의와 기본 시책 ····· 21
(2) 열린관광지 및 테마파크의 무장애 인프라 기준 ····· 21
6) 무장애 환경 이행을 위한 행정적 규제 및 사법적 구제 수단 ····· 22
(1) 실태조사와 지표를 통한 정책 고도화 ····· 22
(2)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체계 ····· 22
7) 법령 간 연계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 23
(1) 배리어프리 인증과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의 조화로운 운영 ····· 23
(2)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적 과제 ····· 24
(3) 무장애 환경 실현을 위한 법적 기틀의 완성도와 향후 방향 ····· 24
3. 배리어프리 인증실적 현황 분석 ····· 26
1) 배리어프리 인증 등급 기준과 의미 ····· 26
(1) 배리어프리 인증의 개념과 등급 체계 ····· 26
(2) 인증 기준의 법적 의미와 특징 ····· 26
(3)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의 정책적 의의 ····· 27
2) 서울시 자치구의 배리어프리 인증 현황 분석 ····· 27
(1) 서울시 자치구별 배리어프리 인증 현황 ····· 27
(2) 서대문구 배리어프리 인증의 한계와 과제 ····· 31
4. 무장애 정보제공 서비스 현황 ····· 33
1)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선정 ····· 33
2) 서울관광재단 ····· 35

Ⅲ.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 무장애환경 관련 현황 분석 ····· 37
1. 서대문구의 무장애 환경 영향 대상 분석 ····· 38
1) 무장애 환경 영향 인구 변화 분석 ····· 38
2) 무장애 관련 교통 여건 분석 ····· 40
3) 장애인의 외출 빈도 ····· 42

# CONTENTS


**2.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대상 분석 ····· 45**

**1)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세부 현황 ····· 45**

**2) 서대문구 동별 방문자 수 및 관광소비액 현황 ····· 47**

**3. 무장애 환경 관련 예산 분석 ····· 49**

**1) 서울시 자치구별 무장애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현황 ····· 49**

(1) 서울시 자치구 무장애 및 유니버설디자인 예산의 유형별 분석 ····· 51

(가) 무장애 숲길 및 산책로 조성 사업 ····· 51

(나) 유니버설디자인 및 도시 환경 개선 사업 ····· 51

(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사업 ····· 52

(라) 예산 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 52

**Ⅳ.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시설 도입을 위한 정책사례 연구 54**

**1. 참여형 이동 약자의 정보 수집과 공유 ····· 55**

**1)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우수사례 ····· 55**

(1) 계단뿌셔클럽 ····· 55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 57**

**3) '무장애 도시' 조성 ····· 60**

(1) 경상남도 진주시 ····· 60

(2) 일본 후쿠오카시 ····· 62

(가) 무장애 도시 실현 과정 ····· 62

(나) 분야별 시민 참여형 UD 도시 실현 ····· 63

**2. 전통시장 무장애 환경 우수사례 ····· 66**

**1) 안성맞춤시장의 스마트 배리어프리 사업 ····· 66**

(1) 사업 배경 및 추진 경위 ····· 66

(2) 사업 내용: ICT 기반 통합 해법 ····· 67

(3) 사업 성과 및 시사점 ····· 68

**2)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사업 배경 및 내용 ····· 69**

(1) 사업 배경 ····· 69

(2) 사업 내용 ····· 70

(3) 사업 성과 및 시사점 ····· 71

# CONTENTS


3) 서울시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 72
(1) 사업 개요 및 추진 체계 ····· 72
(2) 연도별 추진 사례 ····· 72
(3) 사업의 특징 및 확장성 ····· 73
4) '서울디자인어워드'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포함 ····· 73
(1)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73
(2) 유니버설디자인 부문 신설의 의의 ····· 74
(3) 제도적 의의 및 파급효과 ····· 74
5) 전통시장 무장애 환경 조성의 정책적 시사점 ····· 75
(1) ICT 기술과 물리적 환경 개선의 통합적 접근 ····· 75
(2) 주민 참여형 개선 사업의 중요성 ····· 75
(3)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접근 ····· 75
(4) 유지관리 체계 및 교육의 필수성 ····· 75
(5) 맞춤형 설계의 중요성 ····· 76
(6) 정책의 제도화 및 확산 ····· 76
3. 지역축제 무장애 환경 우수사례 ····· 77
1) 안산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77
(1) 축제 개요 및 특징 ····· 77
(2) 릴랙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도입 ····· 78
(3)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입 ····· 78
(4) 접근성 지도 이분화 및 픽토그램 표기 ····· 79
2) 안산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책적 시사점 ····· 81
(1) 릴랙스드 퍼포먼스의 의의 ····· 81
(2) AAC 도입의 혁신성 ····· 81
(3) 접근성 지도 이분화의 효과 ····· 82
(4) 픽토그램을 통한 공연별 접근성 정보제공 ····· 82
(5) 다층적·통합적 접근성 강화 전략 ····· 82
(6) 점진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 83

# CONTENTS


3) 서대문구 축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 ····· 84
(1) 릴랙스드 퍼포먼스 도입 검토 ····· 84
(2) AAC 시스템 구축 ····· 84
(3) 접근성 지도 표준화 및 픽토그램 개발 ····· 84
(4) 축제 운영 인력 교육 체계화 ····· 84
(5) 민간 협력 및 재원 확보 전략 ····· 85
(6) 점진적 개선 로드맵 수립 ····· 85
4.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 ····· 86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의 배경 ····· 86
(1) 정책 추진의 필요성 ····· 86
(2) 법적 근거 및 유예기간 ····· 86
2) 법령 제·개정 연혁 ····· 87
3)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90
(1) 사업 개요 및 목적 ····· 90
(2) 지원 대상 및 유형 ····· 90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의 의의 및 과제 ····· 91
(1) 정책의 의의 ····· 91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 ····· 91
(3) 시행령 개정의 의미 ····· 91
(4)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92

Ⅴ.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 무장애환경 점검 분석 ····· 93
1. 무장애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 94
1)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의 무장애환경 점검 ····· 94
(1) 무장애환경 점검의 필요성 ····· 94
(가)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94
(나)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조성의 중요성 ····· 94
(다) 체계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 95

# CONTENTS


2) 체크리스트의 구성 체계 ····· 95
(1) 3단계 점검 체계의 설계 ····· 95
(2) 분야별 점검항목의 체계 ····· 95
(가) 공통 점검항목의 구성 ····· 96
(나) 전통시장 특화 점검항목의 구성 ····· 97
(다)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의 구성 ····· 99
3) 체크리스트의 주요 특징 ····· 100
(1) 포괄성과 구체성의 균형 ····· 100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 접근 ····· 101
(3) 현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점검 기준 ····· 101
(4) 예방적 관리와 사후 대응의 조화 ····· 102
(5) 점검 결과의 가시성과 활용성 ····· 102
4) 체크리스트의 정책적 의의 및 활용 방안 ····· 103
(1) 정책적 의의 ····· 103
(2) 활용 방안 ····· 104
5) 서대문구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체크리스트 종합 점검 결과 ····· 105
(1) 점검 개요 ····· 105
(2) 축제별 미흡 항목 현황 ····· 105
(3) 미흡 항목의 유형별 분석 ····· 106
(4) 축제 점검 결과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107
(가) 점검 결과의 주요 특징 ····· 107
(나) 정책적 시사점 ····· 107

Ⅵ. 2030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비전 ····· 110
1.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실현 ····· 111
1) 무장애 도시 추진의 국제적·정책적 배경 ····· 111
(1) 도시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 ····· 111
(2)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 112
(3)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 필요성 ····· 112

# CONTENTS

2) 서대문구의 인구 및 지역 환경 특성 ····· 112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 ····· 112
(2) 지형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 ····· 113
3) 서대문형 솔루션 제시로 선도적 모델 구축 ····· 113
(1) '2030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비전' 수립의 필요 ····· 113
(2)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결합 ····· 114
(3) 무장애 도시 실현의 전략적 의미 ····· 114

Ⅶ.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분석 및 제개정안 ····· 116

1. 서대문구 무장애환경 관련 조례 ····· 117
1) 서대문구 무장애 관련 조례 현황 ····· 117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117
(2)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118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19
2) 서대문구 무장애 관련 조례 분석 결과 ····· 120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 120
(2)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정책적 역할 분담 ····· 120
(3) 주민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 ····· 121
(4) 정책의 진화: 선언적 도입에서 실질적 지원으로 ····· 121
(5) 법령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정책 일관성 제고 ····· 122
(6)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 122
3) 현행 조례 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123
(1) 물리적 시설 중심의 편향성 ····· 123
(2) 통합적 비전 및 추진 체계의 부재 ····· 123

# CONTENTS


**2. 서대문구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 124**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124**

(1) 조례(안)의 주요 개요 ····· 124

(2) 조례(안)의 의의 및 특징 ····· 128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환경 조성 조례(안) ····· 131**

(1) 조례(안)의 주요 개요 ····· 131

(2) 조례(안)의 의의 및 특징 ····· 134

**부록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 무장애환경 체크리스트 ····· 138**

**1.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의 무장애환경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139**

**2.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청각장애체험관 견학 ····· 145**

**1) 견학 개요 ····· 145**

**2) 청각장애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 145**

**3)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계자 간담회 ····· 146**

**4)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설 라운딩 ····· 146**

**5) 정책적 시사점 ····· 147**

# CONTENTS

[표 1] 무장애 시설과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 9
[표 2] 무장애 도시 관련 법률 조항 ····· 13
[표 3] 무장애 환경의 구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16
[표 4] 정당한 편의에 관한 법률 조항 ····· 18
[표 5]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과 내용 ····· 18
[표 6]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 20
[표 7] 무장애 관광 구현을 위한 설치 기준 ····· 21
[표 8] BF 인증과 UD의 비교 ····· 23
[표 9]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BF 인증 현황 ····· 28
[표 10] 서대문구 BF 인증 현황 지도 ····· 29
[표 11] 서대문구 BF 인증 민간 시설 현황 ····· 30
[표 12] 수도권 열린관광지 선정 현황 ····· 33
[표 13]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무장애 정보검색 ····· 34
[표 14]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 무장애 관광지 정보제공 ····· 35
[표 15] 서울다누림관광센터 기준 서대문구 무장애 관광 시설 현황 ····· 36
[표 16] 최근 5년간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영향 인구 변화 ····· 38
[표 17] 서대문구 지하철 역사별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현황 ····· 40
[표 18] 장애인의 외출 빈도 ····· 42
[표 19] 서대문구 전통시장 현황 ····· 45
[표 20] 최근 5년간 서대문구 동별 방문자 수와 관광소비액 현황 ····· 47
[표 2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무장애 관련 예산 현황 ····· 49
[표 22] 계단뿌셔클럽 앱 소개 모습 ····· 55
[표 23] 광명시 '청춘곳간'의 계단뿌셔클럽 활동 ····· 56
[표 24]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관련 이미지 ····· 57
[표 25] '서울형'과 정부의 BF 인증제도 비교 ····· 58
[표 26]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시설 현황 ····· 59
[표 27] 진주형 BF 인증제 인증패 ····· 60
[표 28] 제3기(2025~2029) 진주시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세부 사업 ·· 60

# CONTENTS

[표 29] 진주시 홈페이지 무장애 시설 정보제공 모습 ····· 61
[표 30] 후쿠오카 무장애 관광 이미지 ····· 63
[표 31] 후쿠오카 나나쿠마선 내 무장애 관련 안내 이미지 외 ····· 64
[표 32]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준공식 홍보자료 ····· 66
[표 33]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사업 홍보자료 ····· 67
[표 34]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전경 ····· 69
[표 35]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개선 전후 비교 사진 ····· 70
[표 36] 서울시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도별 추진 사례 ····· 72
[표 37] 2025년 서울디자인어워드 개최 홍보자료 ····· 73
[표 38]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모습 ····· 77
[표 39] 릴렉스드 퍼포먼스 안내 멘트 모집 및 녹음 모습 ····· 78
[표 40] AAC 활용 및 안내 모습 ····· 79
[표 41]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접근성 지도 ····· 80
[표 4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조항 87
[표 4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법률의 변화 ····· 88
[표 4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 90
[표 4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형 ····· 90
[표 46] 공통 점검항목 체계 ····· 97
[표 47] 전통시장 특화 점검항목 체계 ····· 98
[표 48]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 체계 ····· 100
[표 49] 7개 축제의 종합 점검 결과 ····· 105
[표 50] 서대문구 무장애 관련 조례 현황 ····· 117
[표 51]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조문 ····· 124
[표 52] 서대문구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환경 조성 조례(안) 조문 ····· 131
[표 53]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견학 및 프로그램 체험 모습 ····· 145
[표 54]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와 간담회 모습 ····· 146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요약

# 연구요약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시대적 당위성

○ 21세기 도시 계획과 지역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과거의 도시 개발이 경제적 효율성과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대의 도시는 '포용성(Inclusiv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그리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핵심 가치로 지향함.

○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중에서도 목표 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또한 세계관광기구(UNWTO)는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주창하며,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여행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중대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안산, 인왕산, 백련산 등 풍부한 자연 녹지와 대학가라는 젊은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나,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은 이동 약자에게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해 왔음.

○ 서대문구 내 6개 전통시장(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인왕시장, 영천시장, 포방터시장)과 연간 개최되는 7개 주요 지역축제(서대문독립축제 등)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공동체 문화의 용광로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이들 공간이 비장애인 성인 남성을 표준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지역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동 약자는 소비와 문화 향유의 주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 심리적, 정보적 장벽을 제거하고, 서대문구를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무장애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배경이 있음.

## 1.2. 연구의 목적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의 주도하에,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현황의 정밀 진단 : 서대문구의 인구구조, 교통 환경, 예산 현황, 그리고 개별 시장과 축제의 접근성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함.

○ 개념의 정립 및 확장 : 물리적 시설 개선에 국한된 '배리어프리' 개념을 넘어, 정보 접근성과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유니버설디자인(UD)'으로 정책의 지평을 확장함.

○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 국내외 우수사례(진주시, 안산시, 후쿠오카시 등)를 분석하여 서대문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도적 기반 구축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무장애 환경 조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2030 비전)을 수립함.

## 1.3.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체계

○ 본 연구는 2025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역을 포괄함. 내용적 범위는 문헌 연구, 법규 분석, 현장 실태 조사, 예산 분석, 사례 연구, 그리고 조례 입법안 마련까지 무장애 환경 구축의 전 과정을 아우름.

○ 전통시장 : 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인왕시장,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총 6개소)

○ 지역축제: 벚꽃축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 어린이축제, 서대문 독립축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서대문 책으로 축제 (총 7개).

○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병행되었음.

# 2. 이론적 배경 및 법적 체계의 심층 분석

## 2.1. 무장애 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적 고찰

○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임. 본 보고서는 두 개념을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로 해석함.

| 구분 | 무장애 시설 (Barrier-Free) |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
|---|---|---|
| 핵심 철학 | 장벽의 제거 (Removal of Barriers) |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
| 주요 대상 |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신체적 제약이 있는 집단 |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는 모든 시민 |
| 접근 방식 | 기존 환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적·보정적(Correctional) 설계 |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사전적·통합적(Integrated) 설계 |
| 구현 사례 | 휠체어 리프트,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 자동문, 레버형 손잡이, 그림문자(픽토그램), 경사로가 통합된 보행로 |
| 한계 및 지향 | 특정 집단 분리 가능성, 법적 최소 기준 준수에 머무를 위험 | 사회적 통합 지향,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사용자 경험(UX) 중시 |
| 정책적 함의 | 즉각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 |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를 위한 궁극적 목표 |

○ 분석된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경우 좁은 통로와 높은 문턱 등 물리적 제약이 심각하므로 BF 방식의 즉각적인 개입이 시급함.

○ 그러나 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는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장이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UD 원칙을 적용하여 심리적, 정보적 장벽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BF가 물리적 기반을 다지는 '하드웨어'라면, UD는 그 위에서 작동하는 '운영체계(OS)'와 같음.

## 2.2. 무장애 환경 관련 법적 체계 및 정합성 분석

○ 대한민국의 무장애 환경 관련 법령은 이동권, 차별 금지, 공공디자인, 관광 향유권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규정되어 있음. 본 연구는 주요 법령을 심층 분석하여 서대문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논리를 도출했음.

### 2.2.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동권의 물적 토대)

○ 이 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보장함.

○ 주요 내용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유효 폭 1.2m 이상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 BF 인증 제도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함. 이는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함

### 2.2.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적 권리 보장)

○ 이 법은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함.

○ 정당한 편의 : 휠체어 리프트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 점자 자료, 인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정보접근성 강화 : 최근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음. 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전통시장(스마트 상점)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됨.

### 2.2.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관광진흥법」(확장된 적용)

○ 공공디자인법 : 공공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연령,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 심미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을 유도함.

○ 관광진흥법 : '무장애 관광(Accessible Tourism)'을 정의하고, 열린관광지 조성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시사점] 현행 법령 분석 결과, 하드웨어(시설)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축제와 같은 '일시적 행사'나 전통시장 내 '개별 사유 점포'의 접근성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미흡하다는 한계가 도출되었음. 이는 서대문구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함.

### 2.3. 배리어프리(BF) 인증 실적 및 현황 분석

○ 서대문구의 BF 인증 현황을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과 한계가 드러남.

○ 인증의 공공 편중 : 서대문구의 BF 인증 실적 총 60건 중 대다수가 구청사,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 발주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민간 영역,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가나 다중이용시설로의 확산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인증 등급의 정체 : 인증을 획득한 시설들도 대부분 '우수' 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획득 사례는 전무함. 이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혁신적인 무장애 환경 조성 의지가 부족함을 시사함.

○ 사후 관리의 부재 : 인증 취득 이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공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3.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영향 및 수요 분석

### 3.1. 인구구조 분석: 잠재적 수요의 폭발적 증가

○ 서대문구의 인구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무장애 환경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무장애 영향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구분 | 2020년 | 2024년 | 증감률 | 시사점 |
|---|---|---|---|---|
| 전체 인구 | 312,173명 | 302,853명 | -3.0% | 인구 감소 시대 진입 |
| 노인 인구 | 53,756명 (17.2%) | 59,685명 (19.7%) | +11.0% | 초고령 사회 임박, 보행 약자 급증 |
| 장애인 인구 | 12,539명 (4.0%) | 11,847명 (3.9%) | -5.5% | 비율은 유지되나 고령 장애인 증가 예상 |
| 무장애 영향 인구 | 100,011명 (34.0%) | 106,427명 (35.1%) | +6.4% | 구민 3명 중 1명이 무장애 환경 필요 |

○ 무장애 정책이 소수자를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구민의 35.1%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생활 인프라 정책이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특히 노인 인구의 급증은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과 겹치므로, 시장의 접근성 개선은 상권 활성화와 직결됨.

### 3.2. 교통 여건 및 접근성 분석

○ 서대문구 내 주요 지하철역의 이동 편의시설 현황은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함.

○ 시설 불균형 : 충정로역, 서대문역 등 도심 접근성이 높은 역사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으나, 전통시장(인왕시장)이 인접한 홍제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전무하고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아 이용객 집중 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장 진입의 단절 :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시장 입구까지 이동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구간의 보도 폭이 좁거나 경사가 심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음.

### 3.3. 관련 예산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무장애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의 예산 편성 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독립 예산의 부재 : 도봉구(무장애숲길 11억 원), 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14억 원) 등 타 자치구는 무장애 관련 사업을 독립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서대문구는 '무장애' 또는 '유니버설' 키워드로 명시된 독립 예산이 없음.

## 4.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서대문구의 모델 정립을 위해 민간, 공공, 해외의 혁신적인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함.

### 4.1. 민간 사례: 계단뿌셔클럽 (시민 참여형 데이터 구축)

○ '계단뿌셔클럽'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당, 카페 등의 출입구 정보를 수집하여 앱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임.

○ 핵심 성공요인 : 공공이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소규모 민간 시설의 접근성 데이터(계단 유무, 경사로 여부 등)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하여 시민 참여로 해결했음.

○ 서대문구 적용점 : 서대문구 인근의 대학생(연세대, 이화여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상점의 접근성 지도를 만드는 '서대문구 무장애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

## 4.2. 국내 사례 1: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소프트웨어 혁신)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하드웨어 개선을 넘어 운영 시스템(소프트웨어)의 혁신을 통해 축제의 포용성을 극대화한 사례임.

○ 릴랙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 발달장애인이나 감각 과민증이 있는 관람객을 위해 소음과 조명을 조절하고, 공연 중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는 포용적 공연 문화를 도입함. 시민 47명이 안내 멘트 녹음에 참여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입 :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그림판(AAC)을 안내소, 의료 부스 등에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소통을 지원함.

○ 접근성 지도 이분화 : 일반 지도와 별도로 휠체어 동선, 장애인 화장실 등이 표기된 '접근성 지도'를 제작하고, 공연별 접근성 정보(대사 많음, 큰 소리 등)를 픽토그램으로 안내함.

## 4.3. 국내 사례 2: 안성맞춤시장 (ICT 융합 스마트 시장)

○ 안성맞춤시장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물리적 한계를 최신 ICT 기술로 극복함.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면이 자동 조절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패드와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키오스크를 도입함.

○ 통합 플랫폼 : 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4.4. 해외 사례: 일본 후쿠오카시 (유니버설 도시 설계)

○ 후쿠오카시는 2003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시정 목표로 삼고, 지하철(나나쿠마선) 설계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의무화함.

○ 시민 검증단 :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 부모 등이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개찰구 폭, 엘리베이터 위치, 화장실 구조 등을 결정했음. 이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도시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함

# 5.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현장 점검 결과

○ 무장애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69개 항목)를 활용하여 서대문구 내 7개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의 응답을 받아 분석했음.

## 5.1. 점검 개요 및 방법

○ 점검 대상 : 서대문독립축제,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신촌벚꽃버스킹, 프랑스거리음악축제, 서대문 국가유산 야행, 서대문 책으로 축제

○ 점검 항목 : 공통 항목(접근성,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보제공, 관리체계) + 축제 특화 항목(이동환경, 서비스 등)

## 5.2. 종합 점검 결과 분석

○ 응답 분석 결과, 7개 축제 모두에서 평균 4.7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서대문 책으로 축제'는 총 7건의 미흡 항목으로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부재'였음.

○ 휠체어 이용자가 갈 수 있는지,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이동 약자의 축제 접근을 심리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개하거나 피드백하는 관리 체계가 없어,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구분 | 주요 점검 결과 및 문제점 | 비고 |
|---|---|---|
| 물리적 접근성<br>(Hardware) | - 단차 제거, 임시 경사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 구비 등은 대체로 양호.<br>- 서대문구가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비교적 준수 |
| 정보제공<br>(Software) | - 7개 축제 전부 웹사이트/홍보물에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 미안내.<br>- 장애인이 축제 방문을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구조. | 매우 미흡 |
| 운영 인력<br>(Software) | - 현장 요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응대 매뉴얼 교육 전무.<br>- 장애인 방문 시 적절한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매우 미흡 |
| 프로그램<br>(Software) | -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부족.<br>- 단순히 '보는' 축제에 그침. | 미흡 |

# 6. 전략적 비전 및 추진 과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2030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 6.1. 비전 체계도

○ 비전 : 가장 따뜻하고 스마트한 무장애 도시, 서대문 (The Warmest & Smartest Barrier-Free City)

○ 핵심 가치 : 포용(Inclusion), 안전(Safety), 연결(Connectivity), 참여(Participation)

○ 3대 전략 목표

- 공간의 포용성: 생활 밀착형 시설 및 축제 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도입
- 정보의 연결성: 온오프라인 무장애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정보 격차 해소
- 제도의 지속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실행력 확보

## 6.2. 세부 추진 과제

### 6.2.1. 서대문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 내용 : 서대문구의 지형적 특성(경사지, 좁은 골목)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적용 :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함.

### 6.2.2. 스마트 포용 기술(Inclusive Tech) 도입

○ 스마트 시장 : 안성맞춤시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통시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스마트 쇼핑 카트, IoT 화재 알림 시스템 등을 도입함.

○ 정보 플랫폼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앱 내에 '무장애 지도' 섹션을 신설하고, 축제 및 시장의 접근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6.2.3. 축제 접근성 인증제 및 운영 혁신

○ 사전 인증제 : 구 지원을 받는 모든 축제에 대해 '무장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소프트웨어 강화 : 안산시 사례와 같이 '릴랙스드 퍼포먼스' 공연을 시범 도입하고, 수어 통역사 및 전담 안내 요원(Barrier-Free Manager) 배치를 의무화한다. AAC(보완대체의사소통) 키트 비치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함.

### 6.2.4.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모니터링단 :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무장애 도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함.

○ 협력 체계 : 상인회, 축제조직위,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함.

## 7. 입법 및 조례 제·개정안 제안

○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기존에 파편화된 조례를 보완하는 두 가지 핵심 조례안을 제안함.

### 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이 조례는 서대문구 무장애 정책의 최상위 근거 규범으로서, 도시 전체의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함.

○ 제2조(정의)는 무장애 도시를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정보적 장벽까지 제거된 상태로 정의하여 정책 범위를 대폭 확장함.

○ 제5조(기본계획 수립)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강제함.

○ 제7조(위원회 설치)는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총괄 심의하고 자문함. 다만, 행정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음.

○ 제9조(시민참여단)는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7.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 환경 조성 조례(안)」

○ 이 조례는 일시적 행사인 축제 및 행사에 특화된 규정으로,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함.

○ 제5조(사전 점검 의무화)는 축제 개최 전 '무장애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여,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함.

○ 제6조 정보접근성 보장)는 축제 홍보물, 웹사이트 등에 수어,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 특히 접근성 정보(주차장, 화장실 등) 안내를 의무화함.

○ 제7조(인력 교육 및 배치) : 축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에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이는 본 연구의 현장 점검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조치임.

○ 제10조(예산 지원)는 무장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시설 설치, 인력 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축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8.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1. 연구의 요약

○ 서대문구는 고령화와 사회적 가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전통시장과 지역축제는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핵심 공간임.

○ 서대문구는 공공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개선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 부문의 참여 저조,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의 부재, 통합적 관리 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음.

○ 특히 축제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정보제공과 인력 교육의 실패는 시설 투자를 넘어선 운영 시스템(소프트웨어)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8.2. 최종 정책 제언

○ 서대문구가 진정한 무장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함.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정책 중심 이동**

○ 이제는 경사로를 놓는 것을 넘어, 그 경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고(정보), 누구나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인력/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 **데이터 기반의 증거 중심 행정 구현**

○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계단뿌셔클럽'과 같은 시민 참여형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함.

□ **조례의 조속한 제정 및 실행**

○ 제안된 두 가지 조례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움직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함.

□ **민관 협력의 생태계 조성**

○ 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상인, 축제 기획자, 장애인 당사자,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함.

○ 결론적으로, 서대문구의 무장애 환경 구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 아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 생존 전략임.

○ 2030 비전과 전략, 그리고 조례안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서대문구는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 도시이자 글로벌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체계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사회의 포용적 환경 조성 요구 증대**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UNWTO(세계관광기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아동 및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과 포용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은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쉬운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UNWTO는 누구나 평등한 관광 활동과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며 포용적인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서대문구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조성 필요성**

○ 서대문구 전통시장과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간 설계 시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 친화적 구조 설계가 미흡한 상황임.

○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물리적인 공간 조성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계획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음.

○ 보도 단차, 비좁은 통로, 장애인 화장실 부족, 안내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이동 약자의 접근성과 체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어, 무장애(Barrier-Free) 환경 구축은 이동 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임.

□ **포용적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 구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무장애 환경은 단순히 장애인 배려를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편의성과 안전을 개선하는 보편적 디자인 실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 무장애 환경 구축은 시장과 축제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서대문구의회의 정책 제언 역량 강화 필요성**

○ 본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정책 제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서대문구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서대문구 전통시장·지역축제 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도출
- 무장애 환경 조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편성 근거 자료 확보
- 정책 제언 및 의정활동 지원 자료 제공

## 3) 연구의 세부 내용

○ 본 연구는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음의 세부 내용을 포함함.

-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현황 조사
- 무장애 관련 정책 및 타 지역 사례 조사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실태 파악
-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관련 조례 제·개정 방안 제안

#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체계

## 1) 연구의 범위 및 기간

□ **연구의 명칭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 **연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간적 범위 : 2025년

○ 대상적 범위 :

-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6개소(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인왕시장,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 서대문구 축제 6개(벚꽃축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 어린이축제, 서대문 독립축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 내용적 범위 :

-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조성 현황 분석
- 무장애 환경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 서울특별시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 공간 재구성 방향 및 필수 시설 등 정책 제안
- 관련 조례 제·개정 방안 제안

## 2)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 (1)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법규 분석**

○ 무장애 환경 관련 논문, 기사, 단행본 등 선행 연구 고찰

○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조례) 검토를 통한 제도적 개선점 도출

□ **현장 조사 및 사례 연구**

○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및 축제 현장의 보행환경, 편의시설 실태 정밀 진단

○ 타 지자체의 무장애 환경 조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시장 상인, 축제 관계자, 이용객(이동 약자 포함) 대상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 및 결과의 타당성 검증

###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정책적 기여**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조성 기본 방향 제시

○ 이동 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 제공

○ 서대문구의회의 정책 견제 및 대안 제시 기능 강화

□ **실무적 활용**

○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

○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운영 개선을 위한 실행 매뉴얼 제공

○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사회적 기여**

○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이용자 기반 확대

○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 포용적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 Ⅱ. 무장애 환경의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1. 무장애 환경에 대한 개념 및 선행조건
2. 무장애 환경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체계 분석
3. 배리어프리 인증실적 현황 분석
4. 무장애 정보제공 서비스 현황

# 1. 무장애 환경에 대한 개념 및 선행조건

## 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시설의 개념 이해

### □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방안

○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 보완을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 시 다양한 설계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설계 원리는 개념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시설로 구분되며, 두 접근 방식은 지향하는 목표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임.

###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특성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은 장애·연령·성별·언어·문화적 배경 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汎用)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임.

○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모든 사용자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 보편적 접근성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은 전통시장의 안내 표지판을 다국어와 픽토그램으로 제작하거나, 지역축제의 참여 프로그램을 연령대별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됨.

○ 이러한 설계 방식은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둠.

### □ 무장애 시설의 개념과 특성

○ 무장애 시설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환경적 장애물 없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이나 시설을 의미함.

○ 이는 기존 환경에 존재하는 장벽(barrier)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주로 이동 약자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함.

○ 무장애 시설의 구체적 사례로는 전통시장 주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통로 폭 확보, 지역축제장의 장애인 화장실 및 휴게공간 마련 등이 있음.

○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최소 기준의 충족을 통해 이동 약자의 기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시설의 공통점**

○ 두 개념의 공통점은 물리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임.

○ 또한 단순히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방식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함.

□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시설의 차이점**

○ 두 개념은 모두 접근성 향상을 지향하지만, 적용 대상과 설계 철학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임.

○ 무장애 시설이 신체적 제약이 있는 특정 집단의 장벽 제거에 집중하는 보정적(補正的) 접근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용자를 포괄하는 예방적·통합적 접근임.

○ 무장애 시설은 장애인용 경사로나 승강기처럼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차 없는 출입구 설계나 직관적 안내체계 구축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통합적 설계를 지향함.

○ 또한 무장애 시설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 의사소통 방식, 서비스 제공 절차 등 비물리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임.

○ 법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 무장애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의 준수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자발적 품질 향상의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최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수용하면서 두 접근방식의 법적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임.

[표 1] 무장애 시설과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 구분 | 무장애 시설(Barrier-Free)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
| 대상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중심 | 모든 사람(장애 유무, 연령, 성별 무관) |
| 목적 | 장애물 제거, 접근성 보장 |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접근방식 | 특정 집단의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 설계 |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설계 |
| 사례 | 경사로, 점자 블록, 저상버스 등 | 레버형 문손잡이, 자동문, 넓은 통로 등 |
| 한계 | 일부 사용자에 한정, 분리된 시설 가능성 | 사회적 포용과 통합, 차별 없는 환경 지향 |
| ※ 출처 : 연구진 정리 | | |

□ **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시설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현행법 제도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하는 대중교통·보행 안전 시설물 등이 연령·성별·장애·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정 집단의 접근성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무장애 공공환경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적용을 위한 통합적 접근**

○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장애 시설 설치를 통한 최소 기준 충족과 유니버설디자인 원리 적용을 통한 보편적 이용 환경 조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법적 의무 사항인 편의시설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안내 체계의 다국어·다감각화, 프로그램의 다층적 구성, 휴게공간의 통합적 설계 등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음.

## 2) 무장애 도시 구축이 중요한 선행조건

○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도시를 구축하는 것은 선행조건으로,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간이며,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주요한 사회적 장치임.

○ 그러나 이러한 공간과 행사가 물리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게만 접근 가능하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의사소통 수단, 사회적 인식 등 다층적 차원에서 장벽을 제거한 도시 환경을 의미함.

○ 전통시장의 경우 좁은 통로, 단차가 있는 출입구, 부족한 편의시설 등이 이동 약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지역축제 역시 행사장의 접근로, 편의시설, 정보 안내 체계 등이 미흡할 경우 참여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 따라서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진정한 접근성 확보는 단순한 물리적 개선을 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지역의 경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는 지역 활성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임.

## 3) 무장애 도시의 개념과 특징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도시**

○ 고령화, 장애인 증가, 가족 다양성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도시의 포용성·접근성 확보가 필수 과제로 부상함.

○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란 모든 시민이 물리적·정보적·사회적 장벽 없이 공간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의미함.

○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시의 구조, 교통, 정보, 서비스, 인식 전반을 개선하는 도시정책의 총칭임.

○ 무장애 도시의 핵심은 물리적 개선(경사로, 피난·비상 동선, 편의시설 등) 뿐 아니라 정보·의사소통(점자, 음성 안내, 수어·쉬운 글 등), 서비스(네트워크형 지원체계), 인식 개선(교육, 캠페인 등) 등의 사회적 장벽까지 해소하는 것이 동시에 추진될 때 실질적 성과가 나타남.

○ 무장애 도시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도시정책이며, 근본적으로는 시설 개선을 넘어 사람 중심, 포용적 도시로 전환하는 사회적 운동의 성격도 지님.

○ 또한, 무장애 도시는 기존의 '장애인 중심' 편의시설 개념에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운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

# 2. 무장애 환경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체계 분석

## 1) 무장애 도시의 법률적 근거의 변화

○ ‘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개념이 명시됨.

○ 이후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의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

○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배리어프리(Barrier Free : BF)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15년에 공공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인증이 의무화됨.

[표 2] 무장애 도시 관련 법률 조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 인증 관련 조항 |
|---|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br>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br>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 증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br>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br>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 축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배리어프리 인증 관련 조항**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본조신설 2009. 12.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

| |
|---|
| 시설<br>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br>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지역<br>[전문개정 2015. 8. 3.]<br>…이하 생략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 무장애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기반의 세부 분석

○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무장애 환경(Barrier-Free)과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동권'과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

○ 초기 한국의 관련 법령은 시혜적 관점에서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으로 그 지평을 확장해 왔음.

○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관광진흥법」이라는 네 가지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들 법령은 각각 교통 인프라, 권리구제 및 정당한 편의, 공공시설의 보편적 설계, 그리고 문화·여가 향유권이라는 영역에서 무장애 환경의 표준을 제시하고 강제함.

###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한 물리적 무장애 환경의 구축

#### (가) 교통약자의 정의와 이동권의 법적 지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함. 이는 무장애 환경의 수혜 대상이 특정 소수 계층이 아닌, 생애 주기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임을 의미함.

○ 또한 제3조는 이들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인 '이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 차원으로 격상시켰음.

### (나) 이동편의시설의 기술적 기준 및 대상 시설 분석

○ 무장애 환경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법 제9조와 제10조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과 기준을 규정함.

○ 대상 시설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로 구분되며, 각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함.

[표 3] 무장애 환경의 구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대상 구분 | 구체적 범위 및 시설물 | 세부 기술 기준 (핵심 수치) |
|---|---|---|
| 교통수단 | 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 저상버스 차실 바닥 면 35% 이상 수평 유지 |
| 여객시설 | 정류장, 터미널, 역사, 공항, 항만 | 보행 접근로 유효 폭 2.0m 이상 확보 |
| 도로 | 보도, 보행 우선 구역, 도로 부속물 | 종단 기울기 1/12 이하 (권장 1/18)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진 재정리 | | |

○ 도로 및 보도의 경우,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바닥 면의 미끄럼 방지 재질 사용과 평탄한 마감이 필수적임.

○ 보도의 횡단 기울기는 휠체어의 전복 방지를 위해 1/25 이하로 제한되며, 유효 폭은 장애물(가로등, 전주 등)을 제외하고 최소 1.2m 이상, 가급적 2.0m 이상을 확보해야 두 대의 휠체어가 교행이 가능함. 또한 계단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의무 도입 메커니즘

○ 법 제14조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버스를 교체(대·폐차)할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해야 함.

○ 이는 경제적 논리보다 교통복지를 우선시하는 법적 의지를 보여줌.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휠

체어 고정 설비와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함.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등)'은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대수 이상을 반드시 운행해야 함.

○ 최근에는 지역 간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거주지에 따른 이용 제한을 금지하여 무장애 이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 (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행정적 실효성

○ 「교통약자법」 제17조의2는 무장애 환경 조성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

○ 인증 심사 시에는 물리적 규격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편의성을 평가하며,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법 제17조의5에 따라 인증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및 인증 취소 조치가 가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함.

###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유니버설디자인의 권리적 해석

#### (1) 차별의 금지와 '정당한 편의'의 정의적 확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 특히 제4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편의'는 무장애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임.

○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비, 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을 총칭함.

[표 4] 정당한 편의에 관한 법률 조항

| 분야 |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의무 내용 | 법적 근거 |
|---|---|---|
| 고용 | 시설·장비 개조, 근로시간 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 제11조 |
| 교육 | 통학 편의, 학습 보조기기 대여, 교육 보조 인력 배치 | 제14조 |
| 정보 접근 | 수어·문자 통역, 웹 접근성 보장, 점자 자료 제공 | 제21조 |
| 시설물 접근 | 보조견 동반, 피난·대피시설 설치, 시설 개조 | 제18조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진 재정리 | | |

○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에 해당함.

○ 이는 시설물의 물리적 장벽 제거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장벽까지 제거해야 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임.

##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무장애 환경 분석

○ 기술의 진보에 따라 정보 접근성 문제는 새로운 인권 이슈로 부각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금지하며, 공공기관 등은 수어와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최근 개정 사항 중 주목할 부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의무화임.

[표 5]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과 내용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 | 핵심 요구 사항 및 편의 내용 |
|---|---|
| 공간적 접근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전면 활동 공간 및 무릎 공간 확보 |
| 시각적 접근 | 화면 내 정보를 읽어주는 음성 안내 장치 및 점자 표기 |
| 조작성 | 조작 버튼의 위치 하향 조정 및 촉각 조작 가능 소프트웨어 설치 |
| 비상 조력 | 오류 시 수어·문자 등을 통한 화상 상담 등 중계 수단 제공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진 재정리 | |

○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점자 표시, 화면 확대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와 조작 버튼의 배치도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장애 유형에 따라 앱을 원활히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명령 기능을 지원하거나, 설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함.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3) 사법·행정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환경

○ 무장애 환경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법적·정치적 권리 행사 현장에서도 구현되어야 함. 사법기관은 장애인 사건 관계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 내용을 알려야 하며, 수어 통역사나 문자 통역사와 같은 인적 지원을 거부할 수 없음.

○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참정권 행사를 위해 장애 유형에 적합한 기표 방법, 선거용 보조 기구, 보조원 배치를 보장해야 함.

○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결국 민주적 참여의 무장애화로 귀결되어야 함을 시사함. 무장애 환경이 단순히 물리적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를 넘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4) 「공공디자인법」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적 융합

### (1)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원칙과 시행 체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은 무장애 환경의 개념을 '공공성'과 '심미성'의 관점에서 통합함.

○ 법 제10조 제2호는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 정의를 사업 시행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법의 특징은 무장애 환경 조성을 단순한 시설 기준 준수가 아닌, 국가 디자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지역 계획으로 환류됨.

## (2) 공공 시설물에 대한 포용적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 「공공디자인법」 상 '공공 시설물 등'의 범위는 대중교통 시설, 보행 안전시설, 편의시설, 안내 시설 등을 포괄함.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법적 원칙을 구체화하여 실제 설계와 시공에 적용이 가능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6]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 공간/요소 구분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기준 및 효과 |
|---|---|
| 청사 주 출입구 | 단차 없는 입구 및 자동문 설치로 휠체어·유모차 동선 확보 |
| 안내 체계 | 문자를 몰라도 이해 가능한 픽토그램 활용 및 시각적 대비 강화 |
| 민원 카운터 |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를 위한 낮은 카운터 및 무릎 공간 배치 |
| 복도 및 통로 | 기둥 등 돌출물 제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설비 연속 배치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진 재정리 | |

○ 안내 시설의 경우 다국어 표기와 함께 픽토그램(그림 문자)을 병행 사용하여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점자 안내판과 음성 안내 시스템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보행 안전시설은 턱 제거, 경사로 설치, 점자 안내도 배치 등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며,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휴게공간은 장애인용 화장실, 수유실, 유모차 접근 가능 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

○ 이러한 설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짐을 든 외국인, 유모차를 끄는 부모,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무장애 환경의 사회적 비용 대비 효용을 극대화함.

○ 즉, 특정 집단을 위한 특수 설계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이 「공공디자인법」을 통해 정책적으로 구현되고 있음.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장애 관광(Accessible Tourism) 체계 분석

### (1) 무장애 관광의 법적 정의와 기본 시책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3호는 '무장애 관광'을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장벽의 개념을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 영역에서 인식과 제도와 같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 진보적인 정의임.

○ 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에 요구함.

○ 구체적으로 '여행이용권' 지급을 통해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임.

### (2) 열린관광지 및 테마파크의 무장애 인프라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는 '열린관광지' 사업을 통해 관광지의 보행로 정비, 장애인 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함.

○ 특히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는 테마파크(유원시설업)의 접근성임. 「관광진흥법」 제34조의3은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애인 이용 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 노력을 규정하며,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표 7] 무장애 관광 구현을 위한 설치 기준

| 시설 구분 | 무장애 관광 구현을 위한 설치 기준 |
|---|---|
| 매표소/안내소 | 높이 0.7~0.9m, 하부 무릎 공간(깊이 0.45m) 확보 |
| 어트랙션 승하차 구역 | 휠체어 사용자가 대기 및 회전 가능한 유효 면적 확보 |
| 장애인 전용 주차 | 전체 주차 대수의 2~4% 범위 내 최단 거리 설치 |
| 콘텐츠 접근성 | 장애인을 위한 관광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무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진 재정리 | |

○ '열린관광지'는 보행로의 경사도와 폭, 바닥 재질, 안내 표지판의 시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휠체어 대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와 음성 안내 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함.

○ 테마파크의 경우 놀이기구의 탑승 편의성, 안전 보조 장치, 대기 공간의 접근성 등이 무장애 인프라의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함.

○ 이러한 규정은 무장애 환경이 단순한 '이동'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 '여가 및 즐거움'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줌.

○ 관광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자 문화적 권리이며, 무장애 관광의 법제화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여행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6) 무장애 환경 이행을 위한 행정적 규제 및 사법적 구제 수단

### (1) 실태조사와 지표를 통한 정책 고도화

○ 정부는 무장애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함.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와 시설 설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통복지지표'를 공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러한 데이터는 예산 배분과 제도 개선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됨.

○ 실태조사는 단순한 시설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정책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 기능함.

○ '교통복지지표'는 저상버스 도입률,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등 계량적 지표와 함께 이용자의 접근성 체감도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이는 지자체 간 비교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이 됨.

### (2)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체계

○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짐. 「교통약자법」은 이동편의시설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더욱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함. 법무부 장관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차별 행위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특히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어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체계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며,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강제 수단으로 기능함.

○ 특히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와 형사 처벌 규정은 지속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여, 무장애 환경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7) 법령 간 연계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 (1) 배리어프리 인증과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의 조화로운 운영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법령들은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 「교통약자법」의 배리어프리 인증이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 규격'이라는 하한선을 제공한다면, 「공공디자인법」의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은 '사용자 경험의 보편적 만족'이라는 상한선을 향함.

[표 8] BF 인증과 UD의 비교

| 비교 항목 | 배리어프리(BF) 인증 | 유니버설디자인(UD) |
|---|---|---|
| 추진 주체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
| 평가 기준 | 법정 규격 및 수치 준수 | 이용 편의성, 심미성, 공공성 |
| 적용 시점 | 준공 전후 인증 심사 중심 | 기획 및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 |
| 핵심 가치 | 물리적 장벽의 제거 및 이동권 보장 | 사회적 통합 및 모든 사람의 편의 증대 |
| ※ 출처 : 연구진 재정리 | | |

○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단순히 턱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 방법을 인지하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무장애 환경을 지향하게 됨.

○ 배리어프리 인증이 법적 최소 기준을 담보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은 이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을 통해 무장애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2)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적 과제

○ 분석 결과, 현재의 법령은 고령자 인구의 급증과 디지털 기기의 확산이라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범위에 고령자를 포함하고, 키오스크 접근성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임. 그러나 향후에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이나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무장애 환경 표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우수 공공디자인 시상(「공공디자인법」 제21조)이나 국고 보조(「교통약자법」 제14조)와 같은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관광진흥법」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실현해야 함.

### (3) 무장애 환경 실현을 위한 법적 기틀의 완성도와 향후 방향

○ 대한민국의 무장애 환경 관련 법령은 이동권 보장(「교통약자법」),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장애인차별금지법」), 포용적 디자인의 확산(「공공디자인법」), 그리고 문화적 권리 향유(「관광진흥법」)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음.

○ 법령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결론은 무장애 환경이 단순한 시설의 보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물리적 현현(顯現)'이라는 점임.

○ 「교통약자법」에 의한 철저한 규격 관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화,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유니버설디자인 철학의 내재화, 「관광진흥법」에 의한 활동 장벽의 제거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활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토대를 마련함.

○ 정부와 지자체는 법령에 명시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실태조사와 지표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무장애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누구도 이동과 소통, 문화 향유에서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음.

# 3. 배리어프리 인증실적 현황 분석

## 1) 배리어프리 인증 등급 기준과 의미

### (1) 배리어프리 인증의 개념과 등급 체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및 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세 가지 등급으로 부여하는 제도임.

○ 인증 등급은 인증 지표의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최우수' 등급은 만점 대비 90% 이상, '우수' 등급은 80% 이상 90% 미만, '일반' 등급은 70% 이상 80% 미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 이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음.

### (2) 인증 기준의 법적 의미와 특징

○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단순한 적합성 평가를 넘어 시설물의 포용적 설계 품질 수준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함. 이 제도의 법적 의미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필수 항목 최소 기준(과락제)이 적용됨. 전체 총점이 70%를 넘더라도, 인증 기준 중 '항목별 최소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이는 장애인 등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이 누락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 법적 준수와 품질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됨. '일반' 등급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음을 의미하는 반면, '우수' 이상의 등급은 법적 기준을 넘어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고도화된 안내 시스템 등)를 도입했음을 의미함.

○ '최우수' 등급은 법적 의무 사항을 뛰어넘어 이동 약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와 투자(예: 전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를 요구함.

○ 공공 부문은 의무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시설물(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별도의 인증 명판을 부착할 수 있음.

○ 이는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 인증은 효력과 절차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됨.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준공 후 현장 심사를 거치는 '본인증'으로 구분됨.

○ 본인증을 통과해야 최종적인 등급과 인증서 및 인증 명판을 교부받게 됨. 이러한 단계적 심사는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무장애 환경 기준의 지속적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함.

### (3)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의 정책적 의의

○ 배리어프리 인증 등급 체계는 시설주가 단순한 법적 규격 준수를 넘어, 보다 포용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지표로 활용됨.

○ 따라서 배리어프리 인증 등급은 단순한 적합성 평가를 넘어 해당 지역사회의 포용적 건축 품질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며, 무장애 환경 조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2) 서울시 자치구의 배리어프리 인증 현황 분석

### (1) 서울시 자치구별 배리어프리 인증 현황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증실적 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 인증 건수는 1,575건으로, '본인증'은 467건(29.7%)이고, '예비인증'은 1,108건(70.3%)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09개(6.9%)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100개(6.3%), 강남구 90개(5.7%) 순이었으며, 서대문구는 60개(3.8%)를 나타냄.

○ 서대문구의 인증실적 현황을 보면, 총 60건의 배리어프리 인증 실적을 기록했으며, '본인증'이 22건(36.7%)이고, '예비인증'이 38건(63.3%)으로 나타남.

- 다만, '예비인증' 후 '본인증'을 획득하여 중복된 사례가 있으나, 자료상 별건으로 산정되었기에 이를 따름.

[표 9]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BF 인증 현황

| 구분 | 전체 인증 | | 본인증 | | 예비인증 | |
|---|---|---|---|---|---|---|
| | 수 | 비중 | 수 | 지역 내 비중 | 수 | 지역 내 비중 |
| 강남구 | 90 | 5.7% | 25 | 27.8% | 65 | 72.2% |
| 강동구 | 85 | 5.4% | 17 | 20.0% | 68 | 80.0% |
| 강북구 | 35 | 2.2% | 13 | 37.1% | 22 | 62.9% |
| 강서구 | 100 | 6.3% | 35 | 35.0% | 65 | 65.0% |
| 관악구 | 53 | 3.4% | 11 | 20.8% | 42 | 79.2% |
| 광진구 | 48 | 3.0% | 16 | 33.3% | 32 | 66.7% |
| 구로구 | 49 | 3.1% | 11 | 22.4% | 38 | 77.6% |
| 금천구 | 44 | 2.8% | 10 | 22.7% | 34 | 77.3% |
| 노원구 | 66 | 4.2% | 18 | 27.3% | 48 | 72.7% |
| 도봉구 | 53 | 3.4% | 19 | 35.8% | 34 | 64.2% |
| 동대문구 | 54 | 3.4% | 14 | 25.9% | 40 | 74.1% |
| 동작구 | 83 | 5.3% | 31 | 37.3% | 52 | 62.7% |
| 마포구 | 51 | 3.2% | 13 | 25.5% | 38 | 74.5% |
| **서대문구** | **60** | **3.8%** | **22** | **36.7%** | **38** | **63.3%** |
| 서초구 | 88 | 5.6% | 26 | 29.5% | 62 | 70.5% |
| 성동구 | 49 | 3.1% | 19 | 38.8% | 30 | 61.2% |
| 성북구 | 66 | 4.2% | 16 | 24.2% | 50 | 75.8% |
| 송파구 | 109 | 6.9% | 41 | 37.6% | 68 | 62.4% |
| 양천구 | 86 | 5.5% | 24 | 27.9% | 62 | 72.1% |
| 영등포구 | 79 | 5.0% | 24 | 30.4% | 55 | 69.6% |
| 용산구 | 26 | 1.7% | 8 | 30.8% | 18 | 69.2% |
| 은평구 | 69 | 4.4% | 24 | 34.8% | 45 | 65.2% |
| 종로구 | 44 | 2.8% | 8 | 18.2% | 36 | 81.8% |
| 중구 | 44 | 2.8% | 9 | 20.5% | 35 | 79.5% |
| 중랑구 | 44 | 2.8% | 13 | 29.5% | 31 | 70.5% |
| **합계** | **1,575** | **100.0%** | **467** | **29.7%** | **1,108** | **70.3%** |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대문구 배리어프리 인증의 세부 분석 : 공공의 '우수' 등급 편중 및 민간 참여 저조**

○ 서대문구 최초의 인증 기록은 2010년 11월 8일 '홍은1구역 동부 센트레빌'의 예비/우수 등급 1건이었으며, 이는 민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공동주택 사업이었음.

○ 이후 2017년까지 산발적 인증 활동이 이어지다가, 2017년부터 서대문구청이 직접 주도하는 공공 시설물 인증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함.

○ 2017년 3건을 시작으로 2025년 7월까지 총 34건의 공공시설 인증이 신청되었으며, 특히 2018년 7건, 2022년 6건 등 특정 연도에 인증 활동이 집중됨.

○ 이 시기 인증을 받은 주요 시설은 '서대문구 종합보육시설', '신촌 문화발전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대문구청 별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구청이 직접 관여하는 복지·교육·업무시설들이었음.

○ 2017년 이후의 급진적 확대는 서대문구가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단순한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정책적 전환의 증거로 해석됨.

○ 이는 2008년 서대문구가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이후, 수년간의 정책적 시간 지연을 거쳐 구체적인 배리어프리 건축물 인증 실적으로 발현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서대문구는 전체 60건의 인증 실적 중 57건(95.0%)이 '우수' 등급을 차지하며 매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능력을 보여주나, 동시에 '최우수' 등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서대문구가 2017년 이후 구청 주도로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에 배리어프리 인증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공공시설에 걸쳐 '우수' 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의 안정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선도적이거나 혁신적인 수준의 '최우수' 등급 달성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함.

○ 다만 예비인증 시설을 본인증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공공 프로젝트 이행의 책임성과 완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민간 부문의 참여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청 주도의 공공시설 중심 정책과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 확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10] 서대문구 BF 인증 현황 지도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는 서대문구가 확립한 체계화된 절차와 행정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임과 동시에, 현재 배리어프리 인증 전략이 '수용이 가능한 최소 기준'의 충족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패턴은 지역 전반에 걸쳐 무장애 접근성을 양적으로 확산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혁신적인 배리어프리 설계 및 시공 사례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동반함.

○ 모든 배리어프리 인증 실적이 '최우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우수' 또는 '일반' 등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서대문구 배리어프리 환경의 질적 도약을 저해하는 요소임.

○ 서대문구에서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은 총 6개소에 불과함. 그중 2건은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의 예비 및 본인증 사례로, 실질적인 민간 인증 시설은 5개소로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 시설은 모두 '일반' 등급에 그치고 있어 공공 영역 대비 배리어프리 이행 품질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

[표 11] 서대문구 BF 인증 민간 시설 현황

| 구분 | 예비 | 예비 | 본 | 예비 | 예비 | 본 |
|---|---|---|---|---|---|---|
| 등급 | 우수 | 일반 | 일반 | 우수 | 우수 | 우수 |
| 지역(시설)명 | 홍은1구역 동부 센트레빌 |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힐스테이트 신촌 | 홍은 노인요양시설(병설 데이케어센터) | 신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홍은 노인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
| 대상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 신청기관 |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홍은 제13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주식회사 에스씨디 | 홍은 제13구역 주책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
| 면적 | 44,242.93 | 184,229 | 184,229 | 1,334.04 | 17,877.92 | 1,334.04 |
| 용도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
| 인증 일자 | 2010-11-08 | 2017-11-09 | 2020-07-28 | 2021-12-27 | 2022-07-01 | 2023-08-11 |
| 인증만료일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 2030-07-27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 본인증 교부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 2033-08-10 |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 | | |

## (2) 서대문구 배리어프리 인증의 한계와 과제

○ 공공 인증 사업에서 '우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설계 단계에서 법적 최소 기준 이상의 혁신적 배리어프리 요소를 적극 도입하지 않거나, 예산 및 시공 여건에서의 제약, 또는 혁신적인 배리어프리 모범 사례를 채택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서대문구청은 배리어프리 인증 실적의 질적 성장을 위해 상징적인 신규 공공복지 또는 문화 시설 1~2개소를 선정하여 '최우수' 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 시범 사업은 배리어프리 기준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혁신적으로 적용하고, 장애인 및 시민,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여 배리어프리 설계 및 시공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이러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는 서대문구의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지역 배리어프리 환경의 질적 기준을 상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더욱이 재개발 및 재건축의 요구가 높은 서대문구의 특성상 민간 영역에서의 배리어프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건축물에 대한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대문구는 개발 허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우수'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배리어프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및 홍보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배리어프리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통합 배리어프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배리어프리 환경의 실질적 이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이를 통해 서대문구는 양적 확산에서 질적 도약으로의 정책 전환을 완성하고, 서울시 내에서 배리어프리 선진 모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4. 무장애 정보제공 서비스 현황

## 1)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선정

○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됨.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개선한 관광지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모를 통해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 열린관광지 제도를 통해 단계적 조성이 가능함.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132개소의 조성이 완료됨. 2025년에는 추가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총 182개소 달성을 목표로 함.

[표 12] 수도권 열린관광지 선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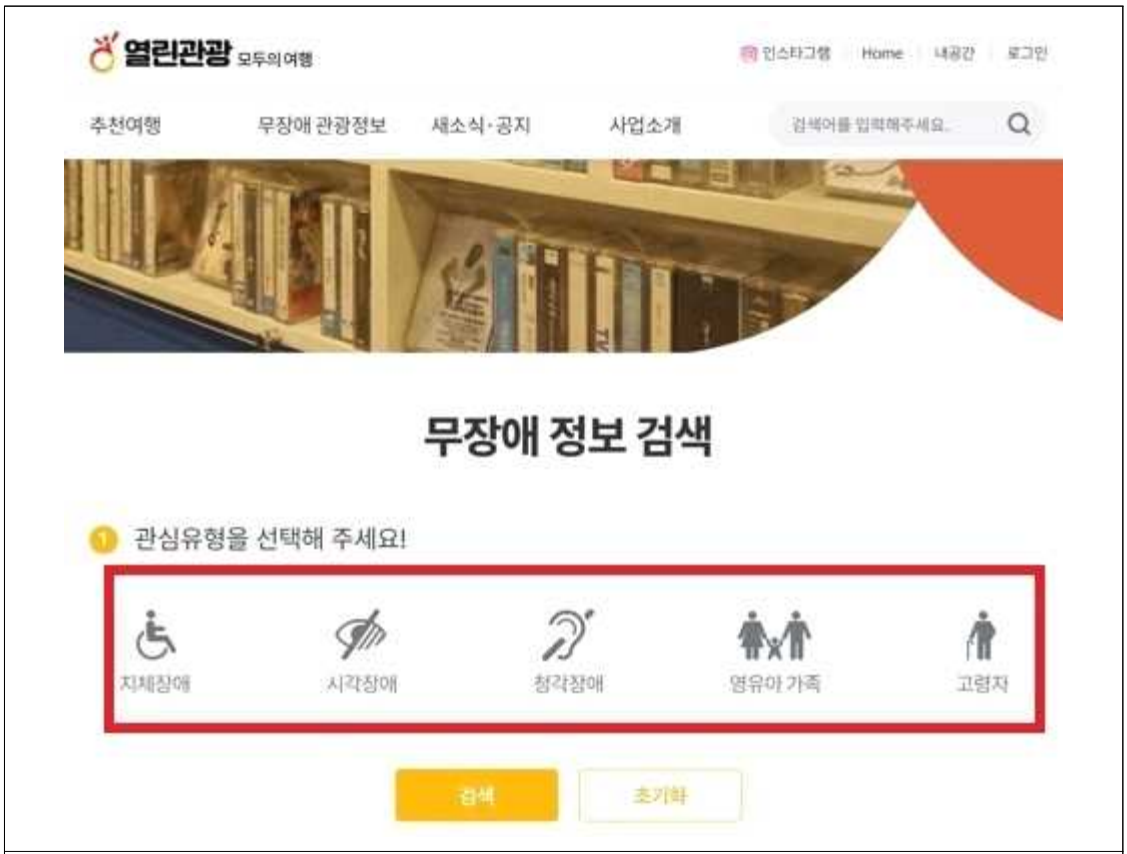
| 번호 | 지역 | 관광지 명칭 | 번호 | 지역 | 관광지 명칭 |
|---|---|---|---|---|---|
| 01 | 인천 | 개항장 역사문화의 거리 | 13 | 시흥 | 오이도 포구 해양관광단지 |
| 02 | 인천 | 연안부두해양광장 | 14 | 양평 | 세미원 |
| 03 | 인천 | 월미문화의거리 | 15 | 연천 | 재인폭포공원 |
| 04 | 인천 | 하나개해수욕장 | 16 | 연천 |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
| 05 | 고양 | 행주산성 | 17 | 연천 | 한탄강댐 |
| 06 | 고양 | 행주산성역사공원 | 18 | 용인 | 한국민속촌 |
| 07 | 고양 | 행주커뮤니티센터 | 19 | 파주 | 공릉관광지 |
| 08 | 수원 | 화성연무대 | 20 | 파주 | 마장호수 |
| 09 | 수원 | 화성장안문 | 21 | 파주 | 임진각 관광지 |
| 10 | 수원 | 삼성행궁 | 22 | 파주 | 제3땅굴(중성) |
| 11 | 시흥 | 갯골생태공원 | 23 | 파주 | 도라전망대(조성 중) |
| 12 | 시흥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 | | |
| ※ 출처 : 한국관광공사 | | | | | |

○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은 ① 진입 지점부터 주요 체험·관람·휴게·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 조성, ② 체험형 열린관광 콘텐츠 확보, ③ 확보된 동선을 바탕으로 리플렛 등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강화, ④ 관광지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열린관광·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서비스 대응 교육 실시 등으로 구성됨.

○ 전국 182개의 열린관광지 중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선정된 곳이 없으며, 인천 4개소, 고양시 3개소, 수원시 3개소, 시흥시 3개소, 파주시 5개소, 연천군 3개소, 용인시 1개소, 양평군 1개소가 선정됨.

○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이라는 명칭으로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13]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무장애 정보검색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 '모두의여행'

○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에서 제공하는 서대문구의 무장애 관광에 관광지 및 명소는 25건을 제공하고 있음.

## 2) 서울관광재단 '서울다누림관광'

○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 4월 유니버설 환경을 갖춘 서울다누림센터의 개관 및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무장애 환경 관광 정보제공과 무장애 환경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다누림센터는 종로구에 있고, 관광 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에게 관광 정보 및 정보검색,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여행 지원 공간임.

[표 14]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 무장애 관광지 정보제공

※ 출처 :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

○ 서울다누림관광은 홈페이지에서, 청각장애, 보행장애, 고령자, 영유아 가족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관광유형, 관광 약자 편의시설, 관광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별로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다누림관광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대문구의 무장애 관광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지는 5곳, 쇼핑은 2곳, 숙박은 2곳, 음식점은 4곳이 등록되어 있음.

○ 인근 자치구인 마포구 관광지 12곳, 쇼핑 3곳, 숙박 5곳, 음식점 39곳이 등록되어 있고, 종로구는 관광지 은평구는 관광지 4곳, 쇼핑 2곳, 음식점 4곳이 등록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표 15] 서울다누림관광센터 기준 서대문구 무장애 관광 시설 현황

| 유형 | 상호명 | 위치 |
|---|---|---|
| 관광지 | 안산자락길 | 서대문구 봉원사길 75-66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
| | 신촌역 관광안내센터 | 서대문구 신촌역로 30(신촌동) |
|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연희동) |
| | 서대문독립공원 |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
| 쇼핑 | 에바다패션 | 서대문구 포방터길 47 |
| | 독수리약국 | 서대문구 연세로 36(창천동) |
| 숙박 | 신라스테이서대문 | 서대문구 충정로 76(미근동) |
| | 스위스 그랜드 호텔 | 서대문구 연희로 353(홍은동) |
| 음식점 | 카페 폭포 | 서대문구 연희로 262-24(홍은동) |
| | 황소서서갈비 | 서대문구 모래내로 279(홍은동, 송산빌딩) |
| | 엄마손만두 | 서대문구 포방터길 62(홍은동) |
| | 엠브로돈까스 신촌본점 | 서대문구 명물길 26(창천동, 광연빌딩) |
| ※ 출처 : 서울다누림관광 / 기준일 : 2025년 11월 | | |

# Ⅲ.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 무장애환경 관련 현황 분석

1. 서대문구의 무장애 환경 영향 대상 분석
2.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대상 분석
3. 무장애 환경 관련 예산 분석

# 1. 서대문구의 무장애 환경 영향 대상 분석

## 1) 무장애 환경 영향 인구 변화 분석

### □ 서대문구 인구의 1/3은 무장애 환경 영향 대상

○ 무장애 환경 영향을 받는 대상은 아동, 노인, 임산부,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산부의 통계는 명확하지 않아 출생아 수로 대체하였음.

○ 최근 5년간 서대문구의 무장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요 인구 집단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무장애 환경 영향 대상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6] 최근 5년간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영향 인구 변화

| 구분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인구수 | 비중 | 인구수 | 비중 | 인구수 | 비중 | 인구수 | 비중 | 인구수 | 비중 |
| 전체 인구 | 312,173 | - | 304,819 | - | 306,337 | - | 306,231 | - | 302,853 | - |
| 노인 | 53,756 | 17.2% | 53,822 | 17.7% | 55,502 | 18.1% | 57,588 | 18.8% | 59,685 | 19.7% |
| 아동 | 38,155 | 12.2% | 36,160 | 11.9% | 35,687 | 11.6% | 34,745 | 11.3% | 33,453 | 11.0% |
| 장애인 | 12,539 | 4.0% | 12,281 | 4.0% | 12,177 | 4.0% | 11,975 | 3.9% | 11,847 | 3.9% |
| 출생아 수 | 1,561 | 0.5% | 1,452 | 0.5% | 1,392 | 0.5% | 1,332 | 0.4% | 1,442 | 0.5% |
| 무장애 영향 | 100,011 | 34.0% | 103,715 | 34.0% | 104,758 | 34.2% | 105,640 | 34.5% | 106,427 | 35.1% |
|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구진 재가공 / 단위 : 명, % | | | | | | | | | | |

### □ 주요 인구 집단별 변화 특성 비교 및 분석

○ 주요 인구 집단별로 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53,756명(17.2%)에서 2024년 59,685명(19.7%)으로 5,929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5%P 상승함.

○ 이는 5개년간 약 11.0%의 증가율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2024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 노인에 해당하여, 노인 친화적 무장애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아동 인구는 2020년 38,155명(12.2%)에서 2024년 33,453명(11.0%)으로 4,702명 감소하였으며, 비중 또한 1.2%P 하락함. 이는 저출산 추세가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 5개년간 약 12.3%의 감소율을 기록함.

○ 아동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설 계획이 필요함.

○ 장애인 인구는 2020년 12,539명(4.0%)에서 2024년 11,847명(3.9%)으로 692명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0.1%P 소폭 하락함. 절대 수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4.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이는 전체 인구 감소와 장애인 인구 감소가 비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확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적 권리로서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임산부는 무장애 환경의 직접적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구체적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무장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을 분석했음.

○ 출생아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0.5%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2023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24년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는데, 절대 규모가 매우 작아 무장애 환경 영향 대상으로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함.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노인과 아동이 장애인일 경우를 참작해도, 무장애 환경 영향을 받는 전체 인구는 2020년 100,011명(34.0%)에서 2024년 106,427명(35.1%)으로 6,416명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1.1%P 상승함.

○ 이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무장애 환경 수혜 대상 인구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35.1%가 무장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집단에 속하여, 3명 중 1명 이상이 해당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장애 환경 구축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편적 과제임을 보여줌.

## 2) 무장애 관련 교통 여건 분석

○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에, 접근성은 교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무장애 환경의 조성에도 교통은 중요 영향 요인 중 하나임.

○ 그중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높은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대문구에 관내 지하철 역사는 경의중앙선 2개 역(가좌역, 신촌역), 2호선과 5호선(환승) 1개 역(충정로역), 3호선 3개 역(홍제역, 무악재역, 독립문역)이 지나고 있음.

○ 이에, (지하철) 철도 역사의 무장애환경과 관련된 편의시설 현황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배려 시설 현황을 분석해 보았음. 다만, 한국철도공사는 별도의 배려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 지하철 역사 주변 전통시장으로는 인왕시장이 홍제역과 인접해 있고, 영천시장은 독립문역이 인접해 있고 서대문역에서의 접근이 가능함.

[표 17] 서대문구 지하철 역사별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현황

| 역명 | 충정로역 | 서대문역 | 홍제역 | 무악재역 | 독립문역 |
|---|---|---|---|---|---|
| 일평균 이용객 | 28,241명<br>(2호선 19,534명/5호선 8,707명) | 36,621명 | 34,273명 | 8,502명 | 15,573명 |
| 출구 개수 | 10(2호선 6개, 5호선 4개) | 8개 | 4개 | 4개 | 6개 |
| 엘리베이터 | 2 | 3 | 3 | 3 | 2 |
| 에스컬레이터 | 4 | 10 | - | - | 8 |
| 수평 보행기 | - | - | - | - | - |
| 휠체어 리프트 | - | - | - | - | - |
| 이동식 안전 발판 | 1 | 1 | 1 | 1 | 1 |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 1 | 1 | - | 1 | 1 |
| 장애인 화장실 | 1 | 1 | 1 | 1 | 1 |

| 역명 | 충정로역 | 서대문역 | 홍제역 | 무악재역 | 독립문역 |
|---|---|---|---|---|---|
| 음성 유도기 | 16 | 19 | 24 | - | 19 |
| 수어 영상전화기 | - | - | - | - | - |
| ※ 출처 : 서울교통공사 / 단위 : 개, 대, 명 | | | | | |

□ **편의시설 설치의 불균형성**

○ 서대문역과 홍제역은 이용객이 많은 역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서대문역은 에스컬레이터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통시장이 인접한 홍제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역 주변 지형적 특성이나 건설 시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충정로역이나 독립문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임.

□ **핵심 편의시설의 부재**

○ 수평 보행기, 휠체어 리프트, 수어 영상전화기 등은 5개 역 모두에 설치되지 않음. 특히 수평 보행기와 휠체어 리프트는 경사로나 계단 구간이 많은 역사 구조에서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상태임.

○ 수어 영상전화기의 부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임.

□ **기본 편의시설의 편재적 설치**

○ 이동식 안전 발판과 장애인 화장실은 5개 권역 모두에 최소 1개씩 설치되어 있어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무악재역의 경우 음성 유도기가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역내 이동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역시 홍제역을 제외한 대부분 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 빈도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종합적 평가 및 시사점**

○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인접한 홍제역과 독립문역은 엘리베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 수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충정로역은 출구 개수 대비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균형 있게 설치되어 있으나, 출구 수가 많은 서대문역과 독립문역은 에스컬레이터 의존도가 높아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 무악재역은 이용객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음성 유도기 부재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취약함.

○ 결론적으로 전통시장 인접 역사의 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 이동 수단과 음성 유도기, 이동식 안전 발판 등 보조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 이동이나 특수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은 미비한 상태임.

○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동 약자의 실질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설 보완과 함께, 기존 시설의 적정 배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 3) 장애인의 외출 빈도

[표 18] 장애인의 외출 빈도

| 구분 | 2017년도 | 2020년도 | 2023년도 | 연령별 | | |
|---|---|---|---|---|---|---|
| | | | | 19세 미만 | 19~64세 | 65세 이상 |
| 거의 매일 | 70.1 | 45.4 | 63.4 | 94.8 | 72.1 | 54.7 |
| 주 1~3회 | 19.5 | 32.9 | 24.6 | 2.1 | 20.3 | 29.3 |
| 월 1~3회 | 5.9 | 12.9 | 8.6 | 1.4 | 5.1 | 11.7 |
| 전혀 외출하지 않음 | 4.5 | 8.8 | 3.5 | 1.7 | 2.4 | 4.4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 | | | | | | |

□ **장애인 외출 빈도의 변화 추이**

○ 서대문구 장애인의 외출 빈도를 조사한 통계는 부재하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2023)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외출 빈도를 분석함.

○ 조사 결과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거의 매일' 외출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7년 70.1%에서 2020년 45.4%로 급격히 감소한 후, 2023년에는 63.4%로 다시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주 1~3회' 외출하는 비율은 2017년 19.5%에서 2020년 32.9%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24.6%로 감소하였으며, '월 1~3회' 외출하는 비율은 2017년 5.9%에서 2020년 12.9%로 증가한 후 2023년 8.6%로 감소함.

○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2017년 4.5%에서 2020년 8.8%로 증가한 후 2023년 3.5%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외출 빈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 회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연령대별 외출 빈도 특성**

○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외출 빈도를 분석하면, 19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하는 비율이 94.8%로 가장 높으며, 이는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이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성인(19~64세) 장애인은 '거의 매일' 외출하는 비율이 72.1%로 전체 평균(63.4%)보다 높으며, '주 1~3회' 외출이 20.3%로 비교적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임.

○ 반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거의 매일' 외출하는 비율이 54.7%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 1~3회' 외출이 29.3%, '월 1~3회' 외출이 1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출 빈도가 낮은 특성을 보임.

○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도 4.4%로 19~64세(2.4%)보다 높아, 고령 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제한적임을 시사함.

□ **외출 제약 요인 분석**

○ '전혀 외출하지 않음'의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가 66.8%로 가장 높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 8.5% 등으로 나타남.

○ 이는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5.2%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39.8%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장애인이 이동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탑승 어려움'이 53.2%로 가장 높았고, '버스·택시 이용을 위한 정보 접근 어려움' 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15.5% 등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장애인이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낮고 외부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탑승 어려움'이 5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저상버스 확대, 휠체어 탑승 지원 인력 배치 등 교통수단 자체의 물리적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줌.

○ 또한 '버스·택시 이용을 위한 정보 접근 어려움'(17.9%)과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15.5%)은 정보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을 나타냄.

○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가 8.5%를 차지한다는 점은 인적 지원 시스템의 확충이 요구됨을 의미함.

○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 개선을 넘어, 실시간 교통 정보제공,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환경 조성 시 고령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물리적 접근성 개선(하드웨어)과 인적 지원 및 정보제공(소프트웨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외부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요구됨.

# 2. 서대문구 무장애 환경 대상 분석

## 1)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세부 현황

### □ 주요 전통시장 현황

○ 서대문구의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중에서 6개의 전통시장과 6개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 19] 서대문구 전통시장 현황

| 연번 | 시장 명 | 소재지 주소 | 점포 수 | 취급 품목 |
|---|---|---|---|---|
| 1 | 연희사러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23 | 34 | 과일, 잡화, 식재료 |
| 2 | 유진상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 59 | 과일, 잡화, 식재료 |
| 3 | 백련시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87 | 30 | 잡화, 식재료 |
| 4 | 인왕시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8 | 105 | 농수산물, 잡화 |
| 5 | 영천시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7 | 129 | 식재료, 먹거리, 잡화 |
| 6 | 포방터시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길 46 | 84 | 농수산물, 잡화 |
| ※ 출처 : 서대문구의회 제공 | | | | |

○ 전통시장의 경우 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인왕시장, 영천시장, 포방터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장은 고유한 입지 특성과 점포 구성을 보이고 있음.

○ '연희사러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23에 위치하며 34개 점포가 운영 중임. 주요 취급 품목은 과일, 잡화, 식재료이며,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근린형 시장의 성격을 가짐.

○ '유진상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에 위치하며 59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과일, 잡화, 식재료를 취급하여 연희사러가와 유사한 품목 구성을 보임.

○ '백련시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87에 위치하며 30개 점포로 구성됨. 주요 취급 품목은 잡화와 식재료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에 해당함.

○ ‘인왕시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8에 위치하며 10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농수산물과 잡화를 주로 취급하며, 서대문구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장으로 분류됨.

○ ‘영천시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7에 위치하며 129개 점포로 서대문구 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임. 식재료, 먹거리, 잡화를 폭넓게 취급하여 종합시장의 기능을 수행함.

○ ‘포방터시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길 46에 위치하며 84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농수산물과 잡화를 주로 취급하며 중규모 시장에 해당함.

□ **서대문구 지역축제의 주요 현황**

○ 서대문구 지역축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축제는 개최 시기와 장소, 내용 면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보임.

○ ‘벚꽃축제’는 매년 4월(벚꽃 개화 시기)에 안산 지역에서 열리며,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 체험을 제공함.

○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는 매년 4월 경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개최되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운영됨.

○ ‘어린이축제’는 매년 어린이날(5월 5일)에 홍제천 폭포마당 등 홍제천변 일대에서 개최되며, 어린이·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서대문 독립축제’는 매년 광복절(8월 15일)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및 독립공원에서 열리며, 광복절을 기념하는 역사·문화 행사임.

○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는 9월에서 10월 중 신촌 일대에서 개최되며, 세계 청년 문화교류를 주제로 함.

○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는 연말(12월 31일)에 신촌 일대에서 개최되어 연말 공연 형태로 진행됨.

○ 이들 축제는 서대문구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어린이, 청년(대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축제 라인업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 대표 행사로 기능하고 있음.

## 2) 서대문구 동별 방문자 수 및 관광소비액 현황

○ 한국관광공사의 통신사 데이터 및 신용카드 결제 자료를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동별 방문자 수와 관광소비액을 분석한 결과, 신촌동으로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20] 최근 5년간 서대문구 동별 방문자 수와 관광소비액 현황

| 동명 | 방문자 비중 | | 관광 지출액 | |
|---|---|---|---|---|
| | 내국인 | 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 남가좌1동 | 1.5% | 1.0% | 2.0% | 2.4% |
| 남가좌2동 | 2.3% | 2.8% | 3.0% | 5.3% |
| 북가좌1동 | 1.0% | 1.1% | 0.8% | 1.1% |
| 북가좌2동 | 3.9% | 1.1% | 3.7% | 4.3% |
| 북아현동 | 6.1% | 2.5% | 1.5% | 1.5% |
| 신촌동 | 33.7% | 44.5% | 58.9% | 48.5% |
| 연희동 | 8.7% | 20.9% | 10.3% | 14.4% |
| 천연동 | 2.7% | 2.3% | 2.5% | 2.1% |
| 충현동 | 28.4% | 13.2% | 7.7% | 6.1% |
| 홍은1동 | 1.7% | 0.7% | 1.2% | 2.5% |
| 홍은2동 | 3.5% | 3.7% | 3.2% | 3.8% |
| 홍제1동 | 3.0% | 4.5% | 2.2% | 3.8% |
| 홍제2동 | 1.1% | 0.8% | 1.0% | 1.6% |
| 홍제3동 | 2.4% | 0.9% | 2.1% | 2.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 |
| ※ 출처 : 한국관광공사 | | | | |

○ 신촌동은 방문자 비중에서 내국인 33.7%, 외국인 44.5%로 서대문구 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관광 지출액에서도 내국인 58.9%, 외국인 48.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신촌동이 서대문구의 대표적 관광 및 상업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방문자 비중보다 지출액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체류형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연희동은 방문자 비중에서 내국인 8.7%, 외국인 20.9%를 기록하며 외국인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관광 지출액에서는 내국인 10.3%, 외국인 14.4%로 외국인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신촌동에 이어 제2의 관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충현동은 방문자 비중에서 내국인 28.4%, 외국인 13.2%로 높은 방문율을 보이나, 관광 지출액에서는 내국인 7.7%, 외국인 6.1%로 방문자 비중에 비해 소비액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이는 충현동이 체류형 관광보다는 통과형 또는 일상적 생활권 이용이 많은 지역임을 의미함.

○ 그 외 북아현동은 방문자 비중(내국인 6.1%, 외국인 2.5%)에 비해 지출액 비중(내국인 1.5%, 외국인 1.5%)이 낮아 소비 유발력이 제한적이며, 홍은1동은 외국인 방문 비중(0.7%)에 비해 지출액 비중(2.5%)이 높아 외국인의 1인당 소비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홍제1동 역시 외국인 방문 비중(4.5%)과 지출액 비중(3.8%)이 모두 높은 편이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됨.

○ 업종별 지출액 분석 결과, 식음료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소매업, 여가·서비스업, 숙박업, 액티비티 등이 그 뒤를 이음.

○ 이는 서대문구의 관광 소비가 주로 식음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촌·연희동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가 관광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3. 무장애 환경 관련 예산 분석

## 1) 서울시 자치구별 무장애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현황

○ 서대문구는 2025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무장애', '유니버설' 등의 키워드로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당 키워드로 명확하게 책정된 예산은 확인되지 않았음.

○ 다만 2025년 7월 기준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기준으로 서대문구 외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무장애와 유니버설 관련 예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청을 포함해서,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14개 자치구에서 31개 무장애 관련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예산 현황은 각 자치단체의 무장애 관련 예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표 2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무장애 관련 예산 현황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 | | |
|---|---|---|---|---|---|---|
| |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본청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 203,200 | 0 | 203,200 | 0 | 0 |
| 본청 | 계남공원(양천) 무장애숲길 조성 | 0 | 0 | 0 | 0 | 0 |
| 본청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 119,508 | 0 | 119,508 | 0 | 0 |
| 본청 | 둘리쌍문공원 무장애숲길 조성 | 0 | 0 | 0 | 0 | 0 |
| 본청 |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 750,000 | 0 | 750,000 | 0 | 0 |
| 본청 | 오동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연장) | 0 | 0 | 0 | 0 | 0 |
| 본청 | 인왕산(선바위 일대) 무장애숲길 조성 | 0 | 0 | 0 | 0 | 0 |
| 본청 | 초안산 무장애숲길 조성 | 0 | 0 | 0 | 0 | 0 |
| 강북구 | 오동근린공원 무장애길 진입로 보수 및 안내판 설치(구 주민참여) | 100,000 | 0 | 0 | 100,000 | 0 |
| 강북구 | 오동근린공원 북측 무장애길 산책로 조성 | 100,000 | 0 | 0 | 0 | 100,000 |
| 관악구 | 무장애키오스크 설치 지원 | 31,000 | 0 | 31,000 | 0 | 0 |
| 금천구 | 호암산 무장애숲길주변 경관개선 | 400,000 | 0 | 0 | 400,000 | 0 |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 | | |
|---|---|---|---|---|---|---|
| | | 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노원구 | 수락산 무장애숲길유지관리 | 67,513 | 0 | 0 | 67,513 | 0 |
| 노원구 |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br>(한옥어린이집~당고개공원) | 418,831 | 0 | 0 | 418,831 | 0 |
| 도봉구 |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 1,100,000 | 1,100,000 | 0 | 0 | 0 |
| 마포구 | 마포구 유니버설 도시 만들기 '홍잇인간'<br>(주민참여예산) | 84,550 | 0 | 0 | 84,550 | 0 |
| 마포구 |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 | 39,030 | 0 | 0 | 39,030 | 0 |
| 성북구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 | 85,400 | 0 | 0 | 85,400 | 0 |
| 송파구 |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 600,000 | 0 | 0 | 600,000 | 0 |
| 양천구 | 2025년 시민참여예산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 | 21,000 | 0 | 21,000 | 0 | 0 |
| 양천구 | 지양산 무장애숲길 환경개선(주민참여) | 90,000 | 0 | 0 | 90,000 | 0 |
| 용산구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 428,800 | 0 | 0 | 428,800 | 0 |
| 용산구 |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보조) | 24,000 | 0 | 24,000 | 0 | 0 |
| 용산구 |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보조) | 104,000 | 0 | 104,000 | 0 | 0 |
| 은평구 |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 681,227 | 0 | 0 | 0 | 681,227 |
| 중구 |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71,575 | 0 | 0 | 71,575 | 0 |
| 중랑구 |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 250,000 | 0 | 175,000 | 75,000 | 0 |
| 중랑구 |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 | 1,476,074 | 0 | 0 | 1,476,074 | 0 |
| 중랑구 | 무장애놀이터에서 함께해요 | 30,324 | 0 | 0 | 30,324 | 0 |
| 출처 : 지방재정365 / 단위 : 천원 / 시점 : 2025.07 | | | | | | |

○ 본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에 2억320만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에 1억1,950만8천원,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에 7억5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 그 외에도 '계남공원(양천) 무장애숲길 조성', '둘리쌍문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오동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연장)', '인왕산(선바위 일대) 무장애숲길 조성', '초안산 무장애숲길 조성' 등의 사업이 있음.

## (1) 서울시 자치구 무장애 및 유니버설디자인 예산의 유형별 분석

### (가) 무장애 숲길 및 산책로 조성 사업

○ 서울시 자치구의 무장애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장애 숲길 및 산책로 조성 사업임. 이는 대규모 신규 조성 사업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분됨.

○ 대규모 신규 조성 사업으로는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 사업이 약 14억7,6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도봉구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은 11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 중임.

○ 은평구는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에 약 6억8,100만원을 기타 재원으로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 신규 조성 사업은 접근 제약이 있는 자연환경에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으로는 강북구가 오동근린공원 무장애길 진입로 보수 및 안내판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구는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에 약 6,700만원을 투입하고 있음.

○ 이는 일회성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 (나) 유니버설디자인 및 도시 환경 개선 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은 공간 중심 접근과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으로 구분됨.

○ 공간 중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으로는 용산구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이 약 4억2,8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성북구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에 약 8,500만원을 투입함.

○ 중구는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에 약 7,100만원을 편성하여 특정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환경 조성을 지향함.

○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중랑구가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무장애 놀이터 운영에 약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일상생활 속 편의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주민의 실생활 동선과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사업

○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무장애 키오스크 보급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 본청은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광역 단위의 보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관악구(3,100만원), 양천구(2,100만원), 용산구(2,400만원 및 1억400만원) 등 개별 자치구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키오스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있음.

○ 이는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의 무인화 추세 속에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라) 예산 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 서울시 자치구의 무장애 관련 예산은 재원 구성의 다양화, 시민 참여 확대, 본청의 정책적 역할 강화라는 특징을 보임.

○ 재원 구성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운영되나, 도봉구는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에 11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자치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은평구는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에 기타 재원 약 6억8,100만원을 활용하는 등 자치구별로 재원 확보 전략에 차이가 있음.

○ 이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층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시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는 마포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홍잇인간 유니버설 도시 만들기'(8,455만원)와 양천구의 지양산 무장애숲길 환경개선 사업(9,000만원)이 대표적임.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방식은 실제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서울시 본청의 역할은 직접적인 시설 조성보다는 정책 기반 마련과 광역 단위 지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2억320만원),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7억 5,000만원) 등의 사업을 통해 자치구 단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접근성 기준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는 개별 자치구의 산발적 추진을 지양하고 서울시 전체의 일관된 무장애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 Ⅳ.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 시설 도입을 위한 정책사례 연구

1. 참여형 이동 약자의 정보 수집과 공유
2. 전통시장 무장애 환경 우수사례
3. 지역축제 무장애 환경 우수사례
4.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

# 1. 참여형 이동 약자의 정보 수집과 공유

## 1)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우수사례

### (1) 계단뿌셔클럽

○ '계단뿌셔클럽'은 이동 약자와 그 친구들이 계단 정보를 직접 수집·공유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비영리 플랫폼이자 앱 서비스임.

○ IT 스타트업 출신 이대호·박수빈 공동대표가 2021년 휠체어 이용 경험에서 출발하여, '계단정복지도' 앱을 통해 카페·음식점 등의 계단 수, 경사로 여부 등을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앱 기능으로는 계단 정보 등록·탐색, 사용자 리뷰, 접근성 중심 지도를 제공함. 커뮤니티는 크러셔클럽(오프라인 모임), 파트너 프로그램(기관 협력)으로 구성됨.

[표 22] 계단뿌셔클럽 앱 소개 모습

※ 출처 : 계단뿌셔클럽

○ 봄·가을 크루 멤버십과 뿌클로드 에디터 활동을 통해 지속 운영되며, 2025년 가을 500명의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함. 인스타그램(@staircrusher.club)에서 일정 확인 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함.

○ 상업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출구, 출입문 유형, 계단 및 경사로 유무 등 이동 약자에게 필요한 접근성 정보를 수집함.

○ 수집된 정보는 지도 앱에 입력되어 이동 약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됨. 주말 오전 수도권 '정복 활동'을 통해 600여 명이 참여하여 1만여 개 장소 정보를 축적했으며, 2023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89회 클럽 활동으로 12,385개 자료를 수집함.

○ 기업 및 자치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광명시 청년센터 '청춘곳간'은 청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계단뿌셔클럽 활동을 모집하고 있으며, 인천시,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 중임.

[표 23] 광명시 '청춘곳간'의 계단뿌셔클럽 활동

※ 출처 : 광명시 '청춘곳간' 홈페이지

○ SK이노베이션, 쏘카, 주한미대사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이동 약자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트랙, SK행복나눔재단의 행복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

##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 □ 2010년 도입된 서울형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물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임.

○ 본 인증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 및 심사 과정에 참여하며, 서울시가 최종 인증을 부여함.

[표 24]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관련 이미지

※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자료

○ 2010년 도입 이후 단계적 확대를 거쳐 현재의 체계를 구축함. 초기에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체 인증만을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장애인의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분 인증제를 도입함.

○ 2018년부터는 설계 단계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실시함.

○ 인증 대상은 서울지역 내 민간 시설물이며, 인증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전체인증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계획 설계도면 단계 또는 사용승인 시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분인증은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대상으로 함.

○ 모든 인증 신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가능함.

○ 인증 신청은 시설주, 소유자, 시공사(관리자),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 이후 사용승인(준공) 시점에 가능함.

○ 신청 절차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이행한 후 관할 자치구의 장애인 부서 편의시설 담당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증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 인증 절차는 인증시청(건물주) → 현장점검(자치구) → 사전심사(심사위원) → 인증심의(심의회) → 인증서 교부(시장) 순으로 진행됨. 각 단계는 체계적 검증 과정을 통해 편의시설의 실질적 기능성과 접근성을 담보함.

○ 인증을 획득한 건물에는 서울형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됨. 이는 건축주 및 시설 운영자에게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고, 이용자에게는 접근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표 25] '서울형'과 정부의 BF 인증제도 비교

| 구분 | 서울형 인증제 | 정부형 인증제 |
|---|---|---|
| 인증대상 | 민간 건축물(설계, 공사준공, 기존 시설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
| 인증등급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 최우수, 우수, 일반 |
| 인증절차 | 인증심의(1단계) |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
| 인증기관 |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등),국토해양부(LH공사 등) |
| 인증수수료 | 없음 |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면적에 따라 금액 차등 요율 적용 |
| 비고 | 장애물 없는 시설에의 참여, 확산에 중점 | - |
| ※ 출처 : 연구진 재정리 | | |

○ 2022년을 기준으로 138개 건물이 '서울형' 인증을 받았으며, 서대문구는 재인증 사례를 포함하여 11개 건물이 인증을 받음. 그러나 실제 유효한 인증 건물은 8개소로 조정이 필요함.

○ ‘구세군회관’은 충정로역 인근으로 소재지가 기록되어 인증을 받았으나, 실제 위치한 곳은 종로구에 있어 서대문구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무악메디칼약국’은 2018년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폐점하여 인증이 무효화됨. ‘북가좌수약국’은 2016년 인증 후 5년 기한 경과로 부분인증으로 재인증을 받음.

○ 따라서 서대문구의 실제 유효 인증 건물은 11개소에서 3개소를 제외한 8개소로 집계되어야 함.

[표 26]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시설 현황

| 인증번호 | 건물명 | 소재지 | 인증년도 | 비고 |
|---|---|---|---|---|
| 11 | 구세군회관 | 서대문구 충정로3가58-7 | 2012.10 | 위치 오류 |
| 52 | 북가좌수약국 | 서대문구 응암로 60, 1층 | 2016.12 | |
| 53 | 백세당약국 | 서대문구 응암로 54 | 2016.12 | |
| 72 | 아현 파란문약국 | 서대문구 신촌로 35길 10 | 2017.11 | |
| 73 | 명음약국 | 서대문구 신촌로 35길 10 | 2017.11 | |
| 74 | 가좌 진약국 | 서대문구 모래내로 137 | 2017.11 | |
| 75 | 롯데슈퍼 홍제2점 | 서대문구 통일로 413 | 2017.11 | |
| 76 | 카페이스턴 온새미로 | 서대문구 모래내로 173 1층 | 2017.11 | |
| 117 | 세빛약국 | 서대문구 응암로 64, 1층 | 2018.12 | |
| 118 | 무악메디칼약국 | 서대문구 연희로 399 | 2018.12 | 폐점 |
| 133 | 북가좌수약국 | 서대문구 응암로 60, 1층 | 2021.12 | 부분인증 및 재인증 |
| ※ 출처 : 서울시 복지포털 / 기준 : 2022년 | | | | |

## 3) ‘무장애 도시’ 조성

### (1) 경상남도 진주시

□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배리어프리 도시의 구축**

○ 국내에서는 진주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배리어프리 시설의 확대, 조례 제정·진주형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시행 등 적극 정책을 펼치고 있음.

[표 27] 진주형 BF 인증제 인증패

공공시설물·민간시설물

부분인증시설

※ 출처 : 진주시청

○ 기존 법률안보다 엄격한 자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진주형 배리어프리(BF) 인증제도’를 운영해서 공공·민간 시설을 무장애 시설로 인증하고 인증판 부착 및 홍보하고 있음.

○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 정책 추진과 심의 체계 구축과 진주시 장애인시민촉진단 구성, 장애인단체·건축가·시민단체 및 공무원과 협력해 시민 인식개선 및 장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함.

○ 또한, 무장애 도시 추진 실적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있음.

[표 28] 제3기(2025~2029) 진주시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세부 사업

| 목표/구분 | 핵심전략 | 세부 추진 사업 22개 | |
|---|---|---|---|
| 목표 Ⅰ<br>살기좋은<br>장애인 친화도시 | ① 제1기, 제2기 사업보완 및 시민요구 반영 | 사업1 | BF 하우스 만들기 |
| | | 사업2 | 청각장애인 가구 ‘빛소리’ 초인등보급 |
| | ② 체감형 BF 생활환경 조성 | 사업1 | 발달장애인 친화상점 ‘어서오이소’ 조성 |

| 목표/구분 | 핵심전략 | 세부 추진 사업 22개 | |
|---|---|---|---|
| | | 사업2 |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 | | 사업3 | 진주시 공공청사 BF 키오스크 설치 |
| | | 사업4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BF 재정지원 |
| | | 사업5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
| | | 사업6 | 진주시 장애인 '건강 하모' 축제 |
| | | 사업7 | AI 돌봄 로봇 '돌보아요' 지원사업 |
| | ③ 시민참여형 BF 인증제구축 | 사업1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BF 인증 컨설팅 |
| | | 사업2 | 진주형 BF인증 시설 확대 |
| 목표 II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도시 | ① 장애인 친화 인식 개선 향상 | 사업1 | 진주시 장애인 친화 비전(VISION) 홍보 |
| | | 사업2 | 무장애 도시 읍면동위원회활성화 (읍면동무장애의 날 지정 운영) |
| | ②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참여 확대 | 사업1 | 진주시 누구나 편한 이·미용시설 운영 사업 |
| | ③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정책 강화 | 사업1 | 저상버스및 특별교통수단 등 확대 |
| | | 사업2 | BF 스마트 정류장 조성 |
| 목표 III 다 같이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 ① 열린공원조성 | 사업1 | BF 야외 체육시설 조성 |
| | | 사업2 | '신(新)바람' 통합 놀이터 조성 |
| | ② 열린 문화관광예술환경조성 | 사업1 | BF 문화향유 지원사업 |
| | | 사업2 | 어울림 여행 지원 사업 |
| | | 사업3 | 열린관광홍보사이트 및 안내책자 제작(배포) |
| | ③ 장애인 친화구역 조성 | 사업1 | 진주 배리어프리존(Barrier-free Zone) 설치 |
| ※ 출처 : 진주시청 | | | |

## □ 진주시 홈페이지의 상세한 BF 정보제공

○ 홈페이지에 배리어프리 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2025년 6월 기준으로 145개의 공공건축물 중 최우수 등급이 4개, 우수 130개, 일반 11개가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음.

[표 29] 진주시 홈페이지 무장애 시설 정보제공 모습

※ 출처 : 진주시청

## (2) 일본 후쿠오카시

### (가) 무장애 도시 실현 과정

□ **무장애 도시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전환**

○ 후쿠오카시는 2003년 제8차 후쿠오카시 기본계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에 기초한 도시 조성'을 결정함.

○ 단순한 '무장애 공간'을 넘어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교통, 도로, 공원의 무장애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도시'를 목표로 하며, 고령화 심화, 외국인 증가, 출산율 향상 등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됨.

□ **후쿠오카의 무장애 도시 실현 과정**

○ 2012년 10월 제4회 국제유니버설디자인 회의 '2012 in 후쿠오카'를 개최하면서 유니버설도시 후쿠오카 페스티벌을 열었으며, 제9차 후쿠오카 기본계획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정리함.

○ '모두가 친절한, 모두에게 친절한 유니버설도시 후쿠오카'를 도시 조성 비전으로 수립하고, 유니버설도시 후쿠오카 행동 지침에 공통의 시정 목표로 시청 각 부서와 지역별로 고령자, 어린이, 남성, 여성, 장애인, 시민, 내방자, 관광객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정함.

○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으며, 단어의 뜻은 알지만 정책사례를 모른다는 경우도 31.0%에 달함.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는 47.2%였으나, 뜻을 모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의견을 합하면 52.4%가 넘음.

○ 이에 후쿠오카시는 2013년에 2020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홍보전략을 수립함.

○ 2013년 유니버설도시 후쿠오카상을 창설하여 '모두가 친절한 부문'과 '모두에게 친절한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활동 사례를 포상함.

○ 2017년에는 100세 시대를 맞아 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포용적 도시를 실현하는 '후쿠오카 100'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이 포함됨.

### (나) 분야별 시민 참여형 UD 도시 실현

#### □ 관광 분야의 UD 도시 추진

○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관광 편의를 향상함.

[표 30] 후쿠오카 무장애 관광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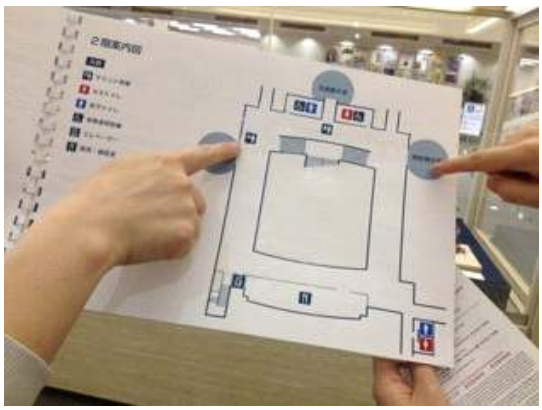
※ 출처 : 언론보도 스크랩 및 후쿠오카시

○ 시스템 측면에서는 저상버스 보급 외에도 운전기사들이 휠체어 탑승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하철역에서 시청까지 다양한 시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오픈 탑 버스 등을 도입함.

○ 소프트웨어로는 장애인 여행 정보를 담은 '휠링투어(Wheeling Tour) 후쿠오카'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광지 및 공항, 터미널 등 시설에 '장애인·고령자 관광안내소'를 운영함.

○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를 정비하며, 인도와 횡단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행 편의를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함.

[표 31] 후쿠오카 나나쿠마선 내 무장애 관련 안내 이미지 외



※ 출처 : 언론보도 스크랩

### □ 지하철 내 시설의 UD 도시 추진

○ 시민 주도로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 시설물 및 교통수단에 적극 도입됨. 2005년 2월 개통한 후쿠오카시가 운영하는 나나쿠마선(七隈線)은 1995년 철도 계획 단계부터 휠체어 이용자, 아이 동반 엄마, 임산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용자 조사를 통

해 불편함을 조사했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결정함.

○ 구체적으로 4개 국어 표기, 높이가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 촉감과 소리로 길을 안내하는 보도 가이드와 개찰구에서 최단거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유도 블록에 절단선을 넣음. 전동차와 대합실 간 단차를 2㎝에서 5㎜로 줄여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의 이동 편의도 향상함.

□ **박물관의 UD 도시 추진**

○ 1990년 건립된 박물관은 20여 년간 변화 없이 전시되다가 2011년과 2013년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장애 공간을 조성함.

○ 이용객 의견 수렴 외에도 인근 주민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자 안내북 별도 비치, 아이들 눈높이에 홍보 영상 설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동선 조정, (샤워 시설과 접이식 침대가 포함된) 다기능 화장실 설치 등을 진행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함.

# 2. 전통시장 무장애 환경 우수사례

## 1) 안성맞춤시장의 스마트 배리어프리 사업

### (1) 사업 배경 및 추진 경위

○ 전통시장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삶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함.

○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고령자와 같은 보행 약자의 방문 빈도가 잦으나, 전통시장이라는 특성상 시설의 밀집도와 노후화 정도가 높아 어느 곳보다 스마트한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안성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성맞춤시장 스마트 배리어프리 사업'을 통해서 ICT 기술과 물리적 환경 개선을 결합해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인 지역맞춤형 공공사업으로 추진했음.

○ 2022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총 12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을 대상으로 보행 약자와 고령층의 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함.

[표 32]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준공식 홍보자료

※ 출처 : 안성시청

## (2) 사업 내용: ICT 기반 통합 해법

○ 사업은 크게 ICT 기반 정보 접근성 개선과 물리적 환경 개선의 두 축으로 구성됨.

○ ICT 분야에서는 점자·음성 안내·수어 영상·높이 조절 기능이 통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장 주요 거점에 설치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 장벽을 완화함.

○ 키오스크는 시각 안내, 결제 지원, 상품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점주·관리자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운영됨.

○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점포별 턱 구성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보조기 사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재 적용으로 안전성을 강화함.

○ 또한 고객 쉼터의 벤치를 리모델링하고 환기 및 냉방 시설을 개선해 장시간 체류 시 편의를 높임.

○ 시설 개선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일반 보행 약자 전체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짐.

○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 기반의 홍보와 이벤트를 연계했으며, 상품권 연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함. 동시에 상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됨.

[표 33]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사업 홍보자료

※ 출처 : 미디어그룹사람과 숲

### (3) 사업 성과 및 시사점

○ 사업 시행 결과, 보행 약자와 고령층의 시장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용 편의 증진으로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

○ 특히 단순 시설 설치를 넘어. ICT 장비 도입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음. 장비의 지속적 작동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와 이용자 교육이 필수적이었던 것 역시 확인됨.

○ 키오스크가 단순 설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인과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교육과 기술 지원이 요구됨.

○ 물리적 시설의 경우 점포별 특성과 이용 패턴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중요함. 획일적 시설 배치보다는 각 점포의 구조적 특성과 주요 고객층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효과적임.

## 2)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사업 배경 및 내용

### (1) 사업 배경

○ 화곡중앙골목시장은 마을로 접근하는 주요 진입로지만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태였음. 질서 없이 쌓인 적재물로 비상 시설물을 찾기 어려웠고, 보행로를 침범하는 매대와 적재물 때문에 통행이 불편했으며, 무질서한 간판으로 길 안내 표지판이나 비상 시설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

[표 34]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전경

※ 출처 : 언론보도 스크랩

○ 2020년 서울시는 화곡중앙골목시장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함.

○ 서울시와 강서구는 각 공간과 주 이용자의 특성을 조사·분석했으며, 시설 전 과정에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

## (2) 사업 내용

[표 35]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개선 전후 비교 사진

※ 출처 : 서울특별시

○ 우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장길 내부를 개선했고, 점포와 보행로 사이의 분리하는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 적치물 등 장애물이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음.

○ 안내 사인을 재정비해 방문객들이 주요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소화기 등 비상 시설은 눈에 확 띄도록 디자인해 비상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 구별이 되지 않던 네 곳의 시장 출입구는 색상으로 구분한 그림 문자 사인과 센서형 스피커를 설치해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등 청각 정보를 통해 장소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보다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차량 진입금지' 등 에티켓 사인도 설치함.

### (3) 사업 성과 및 시사점

○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이 향상됨.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보행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이 사례는 주민 참여형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보여줌.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환경 개선으로 확대할 수 있었음.

## 3) 서울시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 (1) 사업 개요 및 추진 체계

○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편을 겪는 문제를 디자인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모든 시민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목표로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중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 2015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각 공간 유형별로 특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적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문화·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 (2) 연도별 추진 사례

○ 서울시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도별 추진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36] 서울시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도별 추진 사례

| 연도 | 자치구 | 대상 공간·사업명 |
|---|---|---|
| 2025년 | 마포구·은평구 일대 | 수색역-디지털미디어시티 굴다리 공공공간 개선 |
| 2024년 | 동대문구 | 천장산 일대 공공공간 조성·정비 |
| 2023년 | 동작구 | 이촌한강공원 일대 수변 공공공간 개선 |
| 2022년 | 송파구 | 올림픽공원 일대 공공공간 개선 |
| 2021년 | 송파구 | 잠실역(2·8호선) 사잇길 보행 공간 개선 |
| 2020년 | 강서구 | 화곡중앙시장 일대 공공공간 정비(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 2019년 | 동대문구·종로구 | 화목경로당, 충신윗마을일대 공공공간 조성 |
| 2018년 | 금천구 | G밸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공공공간 조성 |
| 2017년 | 성동구 | 성동구 보건소 내·외부 공공공간 조성 |
| 2016년 | 금천구·종로구 | 한내마실터, 행촌마을길 공공공간 조성 |
| 2015년 | 종로구 | 탑골공원 일대 '락희거리' 공공공간 조성 |
| ※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 |

### (3) 사업의 특징 및 확장성

○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공간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통시장, 공원, 역사, 보건소, 경로당 등 다양한 공간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고 적용함.

○ 또한 문화·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4) '서울디자인어워드'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포함

### (1)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또한,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국제상임.

○ 사람과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일상에 기여한 프로젝트의 디자이너, 단체 또는 기업에 수여하는 상임.

[표 37] 2025년 서울디자인어워드 개최 홍보자료

※ 출처 : 서울디자인어워드 홈페이지

○ ‘서울디자인어워드’는 '건강과 평화', '에너지와 환경(업사이클, 리사이클)', '도시와 공동체'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를 모집하고 있음.

○ 접수 대상은 전 세계 디자이너 또는 디자이너가 포함된 모든 그룹 및 기업이며, 디자인 분야는 5년 이내 제품, 시각,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시스템, 서비스/경험/소셜 등을 포함함.

### (2) 유니버설디자인 부문 신설의 의의

○ 2025년부터는 '평등한 기회(유니버설디자인)' 부문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와 모두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을 수상 대상에 포함함.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이 있다면 형태에 제한 없이 어떤 디자인도 출품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예시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두를 위한 공간/제품/서비스 디자인, 사용성·접근성·가독성 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다양한 감각과 신체 조건을 고려한 디지털 솔루션 등이 있음.

○ 제품 디자인,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UX·UI, 공간, 포스터, 로고, 캠페인 등 일상에서 실천한 디자인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전문가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함.

### (3) 제도적 의의 및 파급효과

○ ‘서울디자인어워드’에 유니버설디자인 부문을 신설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 디자인 정책의 핵심 가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는 단순히 시상제도의 변화를 넘어, 서울시가 포용적 디자인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국제 어워드 형식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디자이너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전문가나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한 작은 디자인도 포함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디자인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함.

## 5) 전통시장 무장애 환경 조성의 정책적 시사점

### (1) ICT 기술과 물리적 환경 개선의 통합적 접근

○ 안성맞춤시장 사례는 ICT 기반 정보 접근성 개선과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무장애 환경 조성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 단순한 경사로 설치나 턱 제거를 넘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통한 정보제공, 점자·음성·수어 서비스 통합, 관리자-이용자-점주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무장애 환경의 가능성을 보여줌.

### (2) 주민 참여형 개선 사업의 중요성

○ 화곡중앙시장 사례는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함을 입증함.

○ 단순히 전문가의 설계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과 상인,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3)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접근

○ 화곡중앙시장은 '도시재생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단편적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환경 개선으로 확대함.

○ 이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도시 계획과 통합되어야 함을 시사함.

### (4) 유지관리 체계 및 교육의 필수성

○ 안성맞춤시장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ICT 기반 시설의 경우 설치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 교육이 필수적임.

○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작동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됨. 따라서 기술 지원 체계 구축과 상인·이용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함.

### (5) 맞춤형 설계의 중요성

○ 전통시장은 각각 고유한 역사와 구조, 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

○ 점포별 구조적 특성, 주요 고객층,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효과적임.

### (6) 정책의 제도화 및 확산

○ 서울시의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과 서울디자인어워드 사례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책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줌.

○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은 매년 다양한 공간 유형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고도화되고 있음.

○ 서울디자인어워드에 유니버설디자인 부문을 신설한 것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규제나 지원을 넘어, 인센티브와 인정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임.

# 3. 지역축제 무장애 환경 우수사례

## 1) 안산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1) 축제 개요 및 특징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해서 매년 20만에서 35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 안산시 대표 축제이자 연간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행사임.

○ 이전까지는 많은 관객과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공간 배치와 안전관리에 시간과 예산을 들였다면, 2024년부터는 관객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천에 큰 노력을 기울임.

[표 38]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모습

※ 출처 : 언론보도 스크랩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됨. 축제 현장에 근접한 시설에는 요양병원, 산부인과,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있어 축제 현장에는 장애인, 외국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 관객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거리극 축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던 시민이 늘 한쪽에 공존해 왔음.

○ 2024년부터 축제는 그동안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던 관객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 안전망, 편의시설을 출원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함.

## (2) 릴랙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도입

○ 축제는 '릴랙스드 퍼포먼스 안내 멘트 녹음 참여자 모집' 프로젝트를 준비함. 축제 두 달 전 안내 멘트 녹음 참여자를 모집했고, 5세에서 64세까지 총 47명의 시민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방문해 녹음을 진행함.

- 릴랙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지적장애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낯설지 않은 공연 환경에서 편안하게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임.

[표 39] 릴렉스드 퍼포먼스 안내 멘트 모집 및 녹음 모습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 colspan="2">※ 출처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언론보도 자료</td>
</tr>
</table>

○ 녹음된 시민의 목소리는 29개 공연 사이트에 무작위로 배정됐으며, 안내 말은 다음과 같음.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동에 사는 ○○○입니다. (중략)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지속적으로 단계별 참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관람 중 자연스러운 소리나 행동을 허용하고 휴식을 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략)"

## (3)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입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소통'과 협업하여 처음으로 AAC를 도입했는데, 축제 3달 전부터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소통하며 AAC 준비 방식을 논의했고, 축제 한 달 전부터 그림판을 제작함.

- AAC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구어) 이외의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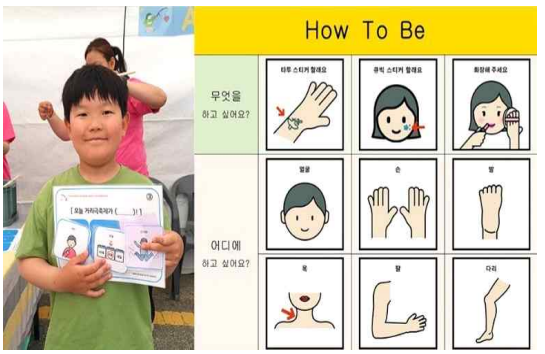
○ 즉,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장애와 상관없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한 그림판을 활용함.

○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관객이 그림판을 통해 축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축제에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의료지원 부스, 휠체어 대여소 등 안내가 필요한 모든 부스의 상황과 안내 내용에 맞게 맞춤 제작해 비치함.

○ 또한 공연 사이트마다 AAC 그림판과 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사전 예약 공연, 참여 공연, 워크숍 프로그램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공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

[표 40] AAC 활용 및 안내 모습



※ 출처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언론보도 자료

## (4) 접근성 지도 이분화 및 픽토그램 표기

○ 즉각적이고 편안한 안내를 위해 축제 현장 및 프로그램북,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의 형태를 '접근성 지도'와 '공연 지도'로 이분화하여 제작함.

○ 접근성 지도에는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대여, 의료지원, 수유실, 주차장 등의 접근성 정보를 담았고, 공연 지도에는 공연 사이트 위치와 체험 프로그램 정보 등 공연 안내를 담음.

○ 이전에는 한 지도 안에 공연 정보와 접근성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이분화된 지도는 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찾던 관객이 더욱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

○ 또한 공연마다 접근성 정보를 픽토그램으로 표기하여 장애인 관객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충분함.

[표 41]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접근성 지도

※ 출처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언론보도 자료

○ 총 8개의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북과 홈페이지에 대사가 많은 공연, 음악 중심 공연, 대본 제공 공연(한글/영어, 휠체어석 확보 공연, 한국 수어 통역 지원 공연, 이동형 공연, 이동 동선 중 경사로 및 턱이 있는 공연, 바퀴가 있는 이동수단 진입 불가 공연 등으로 표기함.

○ 그 외에도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시수어통역센터와 함께 진행한 한국수어통역 지원, 장애인 사전예약 우선시스템,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 공연 사이트별 휠체어석 마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부 직원 워크숍, 접근성 강화를 위한 스폰서 모집 등 총 24개의 실천을 축제에서 실현함.

## 2) 안산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책적 시사점

### (1) 릴랙스드 퍼포먼스의 의의

○ 릴랙스드 퍼포먼스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각적 자극에 민감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방식임.

○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심리적·감각적 장벽을 제거하는 선진적 개념임.

○ 특히 47명의 시민이 직접 안내 멘트 녹음에 참여함으로써, 축제가 특정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행사임을 강조함.

○ 5세부터 6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는 세대 통합적 접근을 보여주며, 녹음된 목소리를 29개 공연 사이트에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축제 전체가 시민의 목소리로 운영되는 상징성을 가짐.

### (2) AAC 도입의 혁신성

○ AAC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검증된 의사소통 방법임. 안산시는 장애인복지관 및 전문 센터와 협업하여 축제 환경에 맞춤형 AAC 그림판을 제작함으로써, 단순히 기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축제 특화 솔루션을 개발함.

○ AAC그림판을 종합안내소, 미아보호소, 의료지원 부스, 휠체어 대여소 등 모든 지원 부스에 상황별로 맞춤 제작하여 비치한 것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보여줌.

○ 또한 각 공연 사이트마다 AAC 그림판과 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의사소통 지원이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축제 전 영역에서 제공되도록 함.

○ 이는 정보 접근성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지원이며, 언어 장벽, 발달 장애, 외국인 등 다양한 의사소통 약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디자인임.

### (3) 접근성 지도 이분화의 효과

○ 기존에는 공연 정보와 접근성 정보가 한 지도에 혼재되어 있어 접근성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시각적으로 복잡했음.

○ '접근성 지도'와 '공연 지도'로 이분화함으로써 정보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각 이용자 그룹의 수요에 맞춘 정보제공이 가능해짐.

○ 접근성 지도는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대여, 의료지원, 수유실, 주차장 등 이동 약자가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음.

○ 공연 지도는 공연 사이트 위치와 프로그램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목적에 최적화된 정보 전달이 가능함.

### (4) 픽토그램을 통한 공연별 접근성 정보제공

○ 총 8개의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각 공연의 접근성 특성을 표기한 것은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 관람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선제적 접근임.

○ 대사가 많은 공연, 음악 중심 공연, 대본 제공 공연(한글/영어), 휠체어석 확보 공연, 한국 수어 통역 지원 공연, 이동형 공연, 이동 동선 중 경사로 및 턱이 있는 공연, 바퀴가 있는 이동 수단 진입 불가 공연 등 다양한 접근성 정보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제시함.

○ 이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외국인 등 각 이용자 그룹이 자신에게 적합한 공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함.

○ 특히 한국 수어 통역 지원, 대본 제공(한글/영어) 등은 정보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임.

### (5) 다층적·통합적 접근성 강화 전략

○ 안산시는 단일 영역의 개선이 아니라 24개의 실천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리적·정보적·심리적·사회적 장벽을 동시에 해소하는 전략을 채택함.

○ 안산시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 장애인 사전 예약 우선 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 공연 사이트별 휠체어석 마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부 직원 워크숍, 접근성 강화를 위한 후원자 모집 등은 정책의 다층성과 통합성을 보여줌.

○ 특히 내부 직원 워크숍은 축제 운영 인력의 장애 인식 개선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접근성 강화를 위한 후원자 모집은 민간 재원 확보를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의미함.

○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기여를 결합하는 접근임.

### (6) 점진적 개선과 지속가능성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 이후 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대규모 축제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객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기존 축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보여줌.

○ 이는 단기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진화적 접근임.

○ 특히 석 달 전부터 AAC 준비, 한 달 전부터 그림판 제작, 두 달 전부터 안내 말 녹음 참여자 모집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 과정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운영 체계를 보여줌.

## 3) 서대문구 축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

### (1) 릴랙스드 퍼포먼스 도입 검토

○ 서대문구의 대표 축제인 서대문독립축제, 서대문 봄빛축제 등에 릴랙스드 퍼포먼스 개념을 도입하여 자폐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 감각 과민성을 가진 참여자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안산국제거리극축제처럼 서대문구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안내 말 녹음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형 축제 운영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이 가능함.

### (2) AAC 시스템 구축

○ 서대문구는 구 내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축제 별 맞춤형 AAC 그림판을 개발하고, 모든 안내 부스와 공연 사이트에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언어 장벽, 발달 장애, 외국인 등 다양한 의사소통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임.

### (3) 접근성 지도 표준화 및 픽토그램 개발

○ 서대문구는 모든 구 주최·지원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접근성 지도 양식과 픽토그램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 정보와 공연 정보의 이분화, 8개 이상의 픽토그램을 통한 공연별 접근성 특성 표기 등은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관람 계획 수립 지원에 매우 효과적임.

### (4) 축제 운영 인력 교육 체계화

○ 안산시의 내부 직원 워크숍 사례는 축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편의 지원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줌.

○ 무장애 환경에 기반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 전 1회 이상 교육 시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5) 민간 협력 및 재원 확보 전략

○ 안산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후원자 모집,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 등은 공공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전략임.

○ 서대문구도 기업 협찬,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6) 점진적 개선 로드맵 수립

○ 안산시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접근성 강화에 나선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보여줌.

○ 서대문구도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사례는 무장애 축제 환경 조성이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 참여, 전문 기관 협력, 정보제공, 인력 교육, 민간 협력 등을 통합하는 종합적 전략임을 보여줌.

○ 서대문구는 이러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무장애 축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4.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

##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의 배경

### (1) 정책 추진의 필요성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장애인, 고령층, 외국인 등 디지털 약자로 불리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임.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키오스크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기존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시각, 청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사용이 쉽지 않았던 문제점이 존재함.

### (2) 법적 근거 및 유예기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하도록 유도함.

○ 키오스크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키오스크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신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전환해야 함.

○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연말 인터뷰를 통해 단속 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현장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다만 매장 방문자의 신고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표 42]「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조항

| |
|---|
| 제10조의2(재화·용역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생략<br>**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8.>**<br>**1.「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br>2.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18.>**<br>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br>2.「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br>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br>**④ 재화·용역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 법령 제·개정 연혁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법령은 지난 20여 년간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음. 199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설비 접근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초기엔 물리적 편의 증설로 정보 접근성은 포함되지 않았음.

○ 2007년 4월 10일(공포) 및 2008년 4월 11일(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함.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 2016년 7월 25일에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초안)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계성 지침 초안 제시 및 국가표준화 기반 마련이 이루어짐.

○ 2022년 2월 25일 KS X 9211:2022「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제정·고시되었으며, 키오스크의 물리적 접근성(높이, 화면 각도 등)과 소프트웨어(UI·음성안내·점자 키 등을 포함한 사용자 경험) 기준을 표준화함.

○ 2021년 7월 27일(공포) 및 2023년 1월 28일(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당한 편의 제공 대상에 '무인정보단말기(무인발권기·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 등)'를 명시하고 고시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모니터링이 실시되어 복지부·국표원 등 관계기관이 전국 키오스크 접근성 실태조사 및 표준 준수 현황 점검함.

○ 2025년 1월 28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되었음. 신규 설치 키오스크는 KS X9211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기기는 약 1년의 유예기간 후 적용(2026년 1월 28일 이후)됨.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함.

○ 2025년 이후에는 제도 정착 및 확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비용 부담·기술 지원 보완 지속, 정부의 보조금·스마트상점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임.

○ 2025년 11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바닥재 설치, 음성안내장치 설치, 인력 배치 등 기존 제한 사항 폐지 및 50㎡ '미만' 사업장에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소상공업과 테이블형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음향 보조기기 설치나 기존 키오스크 이용 보조 인력 배치)도 포함되었음.

[표 4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법률의 변화

| 연도/일자 | 법안 | 내용 |
|---|---|---|
| 1998.04.1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설비 접근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br>초기엔 물리적 편의 중심으로 정보 접근성은 포함되지 않음. |
| 2007.04.10.(공포)<br>2008.04.11.(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br>이후 '정보 접근성' 조항이 키오스크 접근성 논의의 법적 근거로 작용. |
| 2016.07.25 |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초안)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지침 초안 제시. 국가표준화 기반 마련. |

| 연도/일자 | 법안 | 내용 |
|---|---|---|
| 2022.02.25 | KS X 9211:2022 「무인정보단말 기접근성 지침」 제정·고시 | 키오스크의 물리적 접근성(높이, 화면 각도 등)과 소프트웨어(UI·음성안내·점자 등) 기준을 명문화. 공공·민간 시설에 적용 권장. |
| 2021.07.27. (공포) 2023.01.28.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 정당한 편의 제공 대상에 '무인정보단말기(무인발권기·무인주문기·무인결제기 등)' 명시. 고시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 2022~2024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모니터링 실시 | 복지부·국표원 등 관계기관이 전국 키오스크 접근성 실태조사 및 표준 준수 현황 점검 실시. |
| 2025.01.28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 신규 설치 키오스크는 KS X9211 기준을 충족해야 함.<br>기존 기기는 약 1년의 유예기간 후 적용(2026.01.28 이후).<br>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 2025~ | 제도 정착 및 후속 조치 | 소상공인 비용 부담·기술 지원 논의 지속, 정부의 보조금·스마트상점 지원 확대,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검토 중. |
| 2025.11.18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 바닥재 설치, 음성안내장치 설치, 인력 배치 등 기존 제한 사항 폐지<br>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소상공인과 테이블형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호환 보조기기 설치나 기존 키오스크 이용 보조 인력 배치)도 포함 |
| 출처 : 서울대학교 '공공정책 위키' | | |

## 3)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5,600개 상점(313억원)을 2024년에 6,000개 상점(344억원)을 지원했음.

[표 4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 출처 : 언론보도 스크랩

### (2) 지원 대상 및 유형

○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서빙로봇, S/W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표 4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형

| 유형 | 내 용 |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 지원금액 (최대) | 지원규모 |
|---|---|---|---|---|
| 배리어프리 | 배리어프리키오스크 구매 지원 | 70% | 500만원 | 2천개~5천개 |
| | 배리어프리키오스크 렌탈지원 | 70% | 350만원 | |
| 서비스형SW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1년 사용료 지원 | 100% | 30만원 | 3천개 |
| ※ 출처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연구진 재정리 | | | | |

##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의 의의 및 과제

### (1) 정책의 의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특히 장애인, 고령층, 외국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는 의미를 가짐.

○ 2021년 법령 개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가 정당한 편의 제공 대상에 명시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5년 신규 설치, 2026년 기존 기기까지 확대되는 점진적 의무화 접근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적 전략임.

###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와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시 최대 500만원, 렌탈 시 연 350만원, SaaS형 S/W 서비스 1년 구독료 연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완화함.

○ 특히 지원 비율을 50~100%로 유형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3) 시행령 개정의 의미

○ 2025년 11월 18일 개정된 시행령은 바닥재 설치, 음성안내장치 설치, 인력 배치 등 기존 제한 사항을 폐지하고,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

○ 다만 소상공인과 테이블형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은 음향 보조기기 설치나 기존 키오스크 이용 보조 인력 배치를 통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추구함.

○ 이는 법적 의무를 완화하되, 실질적 접근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정책 접근을 보여줌.

### (4)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연말 인터뷰를 통해 단속 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현장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매장 방문자의 신고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되,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하는 유연한 집행 전략을 의미함.

○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교육, 기술 지원, 우수사례 확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함.

# Ⅴ.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 무장애환경 점검 분석

## 1. 무장애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 1. 무장애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 1)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의 무장애환경 점검

### (1) 무장애환경 점검의 필요성

#### (가)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무장애환경 조성은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책과제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UNWTO가 강조하는 포용적 환경 조성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 사회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과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이자 문화 향유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실정임. 보도 단차, 비좁은 통로, 부족한 편의시설, 미흡한 안내 체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약자의 사회참여가 제약받고 있음.

#### (나)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조성의 중요성

○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 복잡한 동선, 불규칙한 바닥면 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전통시장의 무장애환경 조성은 이동 약자의 생활권 보장은 물론, 시장 이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축제는 주민 통합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지만, 임시 시설물 설치와 대규모 인원 집중으로 인해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축제의 무장애환경 조성은 모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축제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

**(다) 체계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 무장애환경 조성은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필요로 함. 현장 여건의 변화, 시설물의 노후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무장애환경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축제는 각각 상설시설과 임시시설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현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점검 기준이 필요함.

○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은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선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2) 체크리스트의 구성 체계

### (1) 3단계 점검 체계의 설계

○ 본 체크리스트는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3단계 구조로 설계되었음.

**□ 1단계: 공통 점검항목**

○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무장애환경 요소를 점검함. 접근성,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보제공, 관리체계 등 5개 분야 2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2단계: 전통시장 특화 점검항목**

○ 상설시설로서 전통시장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점검항목임. 이동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및 서비스 등 2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3단계: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

○ 임시시설과 대규모 인파 집중이라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항목임. 이동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및 서비스 등 2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2) 분야별 점검항목의 체계

### (가) 공통 점검항목의 구성

○ 공통 점검항목은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무장애환경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총 2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이는 접근성,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보제공, 관리 등 5개 분야로 체계화되어 있음.

○ 접근성 분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물리적·정보적·구조적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주요 동선이 1.2m 이상 확보되었는지, 진입로 및 내부 통로의 단차가 2cm 이하로 유지되는지, 바닥이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었는지, 경사로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계단과 단차부에 경사로 대체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안내 표지판에 점자·글자·그림 등이 적용되었는지, 장애인 접근이 쉽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함.

○ 구조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동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이 없는지, 외부로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지, 비상시 쉽게 대피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안전관리 분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 안전 표지·경고 문구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응급대처시설(AED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소화기 등 화재예방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관리 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또한 관람객 동선과 차량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지, 임시 시설물 안전 점검이 시행되고 있는지, 대피 경로와 비상구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야간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아울러 관리자가 비상 연락망을 숙지하고 대응 가능한지, 재해 취약계층 관련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편의시설 분야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동 약자의 편의를 위한 기본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함.

○ 장애인 화장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휴게공간(벤치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 주차장 및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 안내데스크 또는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대기 공간·충전 구역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정보제공 분야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점검함.

○ 다양한 방식(글·소리·점자 등)으로 정보가 제공되는지, 홍보자료 및 웹사이트에 무장애환경 정보가 안내되는지, 의견 접수·민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관리 분야는 2개 항목으로, 무장애환경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점검함.

○ 종사자 및 관리자가 무장애환경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지,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이 공개적으로 안내되는지를 확인함.

[표 46] 공통 점검항목 체계

| 구분 | 분야 | 세부 점검항목 |
|---|---|---|
| 공통 점검항목 (29개) | 접근성 (10개) | 물리적 접근성: 주요 동선 폭 확보(1.2m 이상), 단차 관리(2cm 이하), 바닥 평탄성 및 미끄럼 방지, 경사로 설치 |
| | | 정보 접근성: 점자·글자·그림 표지판, 장애인 접근 표지판 설치 |
| | | 구조적 접근성: 이동 장애 구조물 제거, 대중교통 접근성, 비상 대피 구조 |
| | 안전관리 (10개) | 안전 표지·경고 문구 설치, 응급대처시설(AED 등) 비치, 화재예방 장비(소화기 등) 마련, 안전관리 요원 배치, 관람객·차량 동선 분리, 임시 시설물 안전점검, 대피 경로 및 비상구 안내, 야간 조명 설치, 비상 연락망 및 대응체계, 재해 취약계층 안전대책 |
| | 편의시설 (5개) | 장애인 화장실 구비, 휴게공간(벤치 등) 설치, 장애인 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안내데스크·서비스센터 운영, 대기 공간·충전 구역 마련 |
| | 정보제공 (3개) | 다양한 방식(글·소리·점자 등) 정보제공, 홍보자료 및 웹사이트 무장애환경 정보 안내, 의견 접수·민원 시스템 구축 |
| | 관리 (1개) | 종사자·관리자 무장애환경 교육,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공개 |

### (나) 전통시장 특화 점검항목의 구성

○ 전통시장 특화 점검항목은 상설시설로서 전통시장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총 2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이는 이동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및 서비스 등 2개 분야로 체계화되어 있음.

○ 이동 환경 및 안전 분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일상적 이용 공간으로서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점검함.

○ 시장 내 통로가 물품 적치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항상 확보되어 있는지, 바닥 청결이 유지되고 배수로가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통시장의 출입구 및 주요 입구가 장애인 접근에 쉽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또한 시장 내 계단 및 경사로에 손잡이와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적절한 위치에서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노점상 및 임시 가설물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아울러 시장 내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장 내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어 야간에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지, 분실물 보관소·안내데스크 등 기본 편의시설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출입구 주변에 휠체어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관리체계 및 서비스 분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한 무장애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 체계와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함.

○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사업장 내 무장애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는지,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무장애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지, 고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무장애 환경 홍보와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또한 긴급 상황 시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시장 내 장애인 정보 안내서 및 지도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아울러 불편 신고 및 개선 요구를 위한 피드백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지, 고객 이동 동선과 차량 동선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무장애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및 장애물이 신속히 정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표 47] 전통시장 특화 점검항목 체계

| 구분 | 분야 | 세부 점검항목 |
|---|---|---|
| 전통시장 특화 | 이동환경 및 안전 (10개) | 통로 확보 관리(물품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방지), 바닥 청결 및 배수로 관리, 출입구 장애인 접근성, 계단·경사로 손잡이 및 점형블록, 화재경보기·소화 |

| 구분 | 분야 | 세부 점검항목 |
|---|---|---|
| 점검항목 (20개) | | 기 작동 관리, 노점상·임시 가설물 안전 점검,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조명 확보(야간 안전 통행), 편의시설 장애인 친화적 운영, 휠체어 경사로 및 장애인 주차장 |
| | 관리체계 및 서비스 (10개) | 안전관리자 지정 및 관리체계, 관리자 정기 교육, 고객·상인 대상 홍보·교육, 긴급 상황 비상 연락망, 장애인·고령자 맞춤 서비스, 장애인 정보 안내서·지도 비치, 불편 신고 및 피드백 채널, 고객·차량 동선 분리,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불법 노점·장애물 정비 |

### (다)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의 구성

○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은 임시시설과 대규모 인파 집중이라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2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이는 이동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및 서비스 등 2개 분야로 체계화되어 있음.

○ 이동환경 및 안전 분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간 한정 행사로서 축제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점검함. 축제장 입구와 출구가 장애인 접근에 쉽게 구성되어 있는지, 임시 가설물(무대·천막·좌석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관람객과 차량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또한 응급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접근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 안내 및 의사소통 지원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축제장 내 경사로와 이동로에 손잡이 및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아울러 야간 행사 시 야간 조명이 충분하여 어두운 장소 없이 안전한지, 비상 출입구 및 비상 피난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지, 행사장 내 장애인용 주차 공간과 셔틀버스 등 교통편이 제공되고 있는지, 관람객 혼잡 구간에 장애인 우선 통행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관리체계 및 서비스 분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포용적 축제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와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함.

○ 장애 유형별 참여 가능한 체험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 축제 관련 무장애 환경 홍보 및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판 및 홍보물이 충분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함.

○ 또한 무장애 관련 정보가 축제 홈페이지 및 현장 안내소에 잘 제공되고 있는지, 행사 진행 중 장애인 불편 사항 접수 및 즉각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 의견 수렴 및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함.

○ 아울러 특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별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장애 환경 관련 점검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사장 내 안전요원이 무장애 환경 안내 및 지원 교육을 받았는지, 친환경·안전 요소가 반영되어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함.

[표 48]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 체계

| 구분 | 분야 | 세부 점검항목 |
|---|---|---|
| 지역축제 특화 점검항목 (20개) | 이동환경 및 안전 (10개) | 축제장 입·출구 장애인 접근성, 임시 가설물(무대·천막·좌석) 안전 설치, 관람객·차량 동선 분리, 응급 의료지원 체계, 장애인 안내·의사소통 지원 인력, 경사로·이동로 손잡이·점형블록, 야간 조명(야간 행사 시), 비상 출입구·비상 피난로, 장애인 주차 공간·셔틀버스, 혼잡 구간 장애인 우선 통행 공간 |
| | 관리체계 및 서비스 (10개) | 장애 유형별 참여 프로그램, 무장애환경 홍보·사전 안내, 편의시설·서비스 안내판·홍보물, 축제 홈페이지·현장 안내소 정보제공, 장애인 불편 사항 접수·대응 체계, 참여자·방문객 의견 수렴·개선, 특별 도움 필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관계기관 협력 점검·홍보활동, 안전요원 무장애환경 교육, 친환경·안전 요소 반영 |

## 3) 체크리스트의 주요 특징

### (1) 포괄성과 구체성의 균형

○ 본 체크리스트는 무장애환경의 모든 주요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각 항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 총 69개 세부항목(공통 29개, 전통시장 20개, 지역축제 20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명확한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접근성 분야의 경우 "주요 동선이 1.2m 이상 확보되었는가?", "진입로 및 내부 통로 단차가 2cm 이하로 유지되었는가?"와 같이 정량적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 접근

○ 본 체크리스트는 물리적 시설(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체계(소프트웨어)를 함께 점검하도록 설계되었음.

○ 경사로 설치, 화장실 구비 등의 시설 측면과 함께, 종사자 교육, 비상 연락망 구축, 의견 수렴 체계 등 운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음.

○ 이는 무장애환경이 단순히 시설물 설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임.

### (3) 현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점검 기준

○ 전통시장과 지역축제는 서로 다른 물리적·운영적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공통항목 외에 각각의 특화항목을 별도로 구성함.

○ 이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여건과 이용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전통시장 특화항목의 특징**

○ 전통시장 특화항목은 상설시설이자 상업시설이며 노후시설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됨.

○ 상설시설로서 전통시장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닥 청결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배수로가 원활하게 관리되어야 함.

○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상업시설로서의 특성은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물품 적치로 인해 통로가 방해받지 않는지, 노점상 및 임시 가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지, 무장애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및 장애물이 신속히 정비되는지를 점검함.

○ 노후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적절한 위치에서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등 시설 안전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함.

□ **지역축제 특화항목의 특징**

○ 지역축제 특화항목은 임시시설이자 대규모 집회이며 기간 한정 행사라는 세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됨.

○ 임시시설로서의 특성상 축제는 짧은 기간 내에 설치되었다가 철거되는 구조물을 다수 포함하므로, 임시 가설물인 무대·천막·좌석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임.

○ 대규모 집회로서의 특성은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됨을 의미하므로, 관람객과 차량의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관람객 혼잡 구간에 장애인 우선 통행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응급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접근이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 기간 한정 행사로서의 특성은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축제 관련 무장애 환경 홍보 및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사 진행 중 장애인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장애 유형별로 참여 가능한 체험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4) 예방적 관리와 사후 대응의 조화

○ 본 체크리스트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항목과 함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점검항목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음.

○ 예방적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표지 설치, 정기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점검하며, 사후 대응 측면에서는 응급대처시설 비치, 비상 연락망 구축, 불편 신고 채널 마련 등을 확인함.

## (5) 점검 결과의 가시성과 활용성

○ 체크리스트는 O/X 방식의 이분법적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비고란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사항이나 특이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이는 점검 결과를 단순한 합격/불합격 판단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분야별·항목별 점검 결과를 통해 무장애환경의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4) 체크리스트의 정책적 의의 및 활용 방안

### (1) 정책적 의의

○ 본 체크리스트는 무장애환경 조성이라는 추상적 정책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점검항목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함.

○ 69개 세부 점검항목은 각각 개선 가능한 과제로 전환될 수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무장애환경 조성이 가능함.

○ 체계적인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현장의 무장애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주관적 판단이나 단편적 인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분석이 가능함.

○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개선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는 행정, 상인회, 축제 운영 주체,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공통된 언어와 기준을 제공하여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

○ 점검 결과는 무장애환경 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됨.

○ 서대문구의회가 정책 제언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일회성 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무장애환경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정기적인 체크리스트 점검은 무장애환경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환류 체계의 기초가 됨. 또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소요 예산과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2) 활용 방안

○ 서대문구 관내 전통시장 6개소와 연간 축제 6개 행사에 대해 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계적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수준을 진단하고 분야별·항목별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함.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급성,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각 단계별 소요 예산과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함.

○ 점검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상인회, 축제 운영 주체,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장애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

○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청에 대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무장애환경 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무장애환경의 지속적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5) 서대문구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체크리스트 종합 점검 결과

### (1) 점검 개요

○ 서대문구 내 7개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무장애환경 점검을 했음. 점검은 '공통 점검항목'과 '축제 특화 점검항목'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접근성,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보제공, 관리체계 등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점검함.

○ 대상 축제는 서대문독립축제,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신촌벚꽃버스킹, 프랑스거리음악축제, 서대문 국가유산 야행, 서대문 책으로 축제 등 7개임. 각 축제는 개최 시기, 장소, 규모, 성격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무장애환경 조성이라는 공통의 기준으로 점검됨.

### (2) 축제별 미흡 항목 현황

○ 점검 결과, 7개 축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 미흡 항목의 수는 축제 별로 4건에서 7건까지 분포하며, 평균 4.7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됨.

[표 49] 7개 축제의 종합 점검 결과

| 순위 | 축제명 | 미흡(X) 항목 수 | 비고 | |
|---|---|---|---|---|
| | | | 공통 | 축제 |
| 1 | 서대문독립축제 | 4건 | 정보제공 1건, 관리 1건 | 관리체계 및 서비스 2건 |
| 2 |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 4건 | 관리 2건 | 관리체계 및 서비스 2건 |
| 2 | 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 4건 | 관리 2건 | 관리체계 및 서비스 2건 |
| 2 | 신촌벚꽃버스킹 | 4건 | 관리 2건 | 관리체계 및 서비스 2건 |
| 2 |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 4건 | 관리 2건 | 관리체계 및 서비스 2건 |
| 6 | 서대문 국가유산 야행 | 6건 | 안전관리 1건, 관리 2건 | 관리체계 및 서비스 3건 |
| 7 | 서대문 책으로 축제 | 7건 | 정보제공 1건, 관리 1건, | 이동환경 및 안전 1건, 관리체계 및 서비스 4건, |

○ 서대문독립축제는 총 4건의 미흡 항목이 확인되었으며, 공통 점검항목에서 정보제공 1건과 관리 1건, 축제 특화 점검항목에서 관리체계 및 서비스 2건이 해당됨.

○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신촌벚꽃버스킹, 프랑스거리음악축제는 각각 4건의 미흡 항목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공통 점검항목 중 관리 분야 2건, 축제 특화 점검항목 중 관리체계 및 서비스 분야 2건으로 구성됨.

○ 서대문 국가유산 야행은 6건의 미흡 항목이 확인되었는데, 공통 점검항목에서 안전관리 1건과 관리 2건, 축제 특화 점검항목에서 관리체계 및 서비스 3건이 해당됨.

○ 서대문 책으로 축제는 7건으로 가장 많은 미흡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공통 점검항목에서 정보제공 1건과 관리 1건, 축제 특화 점검항목에서 이동환경 및 안전 1건과 관리체계 및 서비스 4건으로 나타남.

### (3) 미흡 항목의 유형별 분석

○ 점검 결과 나타난 미흡 항목은 크게 공통 점검항목과 축제 특화 점검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공통 점검항목에서는 정보제공 분야와 관리 분야에서 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됨. 정보제공 분야의 경우 서대문독립축제와 서대문 책으로 축제에서 각 1건씩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글·소리·점자 등)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홍보자료 및 웹사이트에 무장애환경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것과 관련됨.

○ 관리 분야는 거의 모든 축제에서 미흡 사항이 나타났는데, 종사자 및 관리자의 무장애환경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이 공개적으로 안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서대문 국가유산 야행에서 1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야간 행사 특성상 조명 확보나 안전요원 배치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 특화 점검항목에서는 관리체계 및 서비스 분야에서 대부분의 미흡 사항이 집중됨. 모든 축제에서 최소 2건에서 최대 4건의 미흡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장애 유형별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장애환경 사전 안내, 현장 대응체계, 관계기관 협력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 이동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는 서대문 책으로 축제에서만 1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물리적 시설보다는 운영 및 관리 측면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줌.

## (4) 축제 점검 결과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가) 점검 결과의 주요 특징

○ 전체 7개 축제의 점검 결과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줌. 물리적 접근성과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구비, 동선 분리 등 하드웨어적 요소들은 대부분 충족되고 있음.

○ 이는 서대문구가 축제 개최 시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에는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함.

○ 반면 정보제공, 교육, 협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뚜렷한 취약점이 나타남. 관리 분야의 미흡 사항이 전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무장애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관리체계 및 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축제가 2건 이상의 미흡 항목을 보인 것은 축제 운영 과정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 안내·의사소통 지원 인력 배치, 장애 유형별 참여 프로그램 운영, 불편사항 접수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축제 규모나 성격에 따라 미흡 항목의 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미흡 항목의 유형은 대체로 유사함.

○ 이는 개별 축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대문구 전체의 축제 운영 시스템에서 무장애환경 조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함을 의미함.

### (나) 정책적 시사점

○ 이번 점검 결과는 서대문구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모든 축제에서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접근성 항목은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이나, 정보제공, 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소프트웨어 항목은 7개 축제 중 6개 이상에서 미흡함.

○ 이는 시설은 갖추었으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운영하는 체계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물리적 접근성만으로는 진정한 무장애환경을 완성할 수 없음을 보여줌.

○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강화로의 전환이 시급함. 이를 위해, 축제 기획 단계부터 무장애환경을 고려하고 운영 과정에서 이동 약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이 내부적으로만 처리되거나 비공개되어 시민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무장애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압력을 약화시킴.

○ 지역 내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리어프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그 결과와 조치 계획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대다수 축제에서 종사자 교육이 미실시되어 현장에서 장애인을 응대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역량 부족으로 이어짐.

○ 체험형 축제에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축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물리적 이동권 보장을 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문자 통역 제공 등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현장 안전요원 및 안내 직원에게 장애 인식 개선 및 편의시설 안내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 7개 축제 전체가 축제 홈페이지 및 현장 안내소에서의 무장애 정보제공에 실패하여 방문객이 현장 도착 전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도 안내받기 어려운 구조임.

○ 이는 개별 축제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축제 운영 시스템에서 무장애환경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축제 기획 단계부터 웹사이트 및 홍보물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무장애 정보 표준 양식을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의 강제성이 필요함.

○ 표준화된 무장애 정보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 주차장 위치 및 수, 장애인 화장실 위치, 휠체어 대여 가능 여부,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위치, 수어 통역 또는 문자 안내 제공 여부, 장애인 전용 관람석이나 휴게공간 정보,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7개 축제 모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 및 홍보활동이 미흡하며, 모든 축제가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서대문구 차원에서 축제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든 축제에 적용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무장애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특히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Ⅵ. 2030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비전

## 1.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실현

# 1.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실현

## 1) 무장애 도시 추진의 국제적·정책적 배경

### (1) 도시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

○ 현대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은 물리적 팽창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포용성(Inclusivity)'으로 근본적 전환되고 있음.

○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1]를 21세기 도시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가이드라인[2]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권고하고 있음.

-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는 도시를 단순한 경제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주거·이동·일자리·교육·문화·공공공간 등에 대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를 보장해야 하는 공간으로 봄. 소득, 성별, 장애, 이주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기본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목표로 포용성과 형평성을 중시함.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외부 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커뮤니케이션·정보, 지역사회 및 건강 서비스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됨. 야외 공간 및 시설은 보행로, 공원, 벤치 등 접근성 강화를, 교통은 대중교통 무장애화와 저렴한 요금을, 주거는 안전하고 적합한 주택 환경 등을 제시함.

○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목표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재편하고 있음.

○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며, 이는 무장애 도시의 핵심 요소와 일치함.

---

1)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도시의 자원과 혜택에 접근하고, 도시 발전의 과정과 성과에 동등하게 참여·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시 비전으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의 핵심 가치로 제시되었음.
2)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 정책·서비스·도시구조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사회·경제 자원으로 인식되고 전 생애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를 목표로 함.

### (2)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 서대문구가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구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 과제가 될 수 있음.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가능한 공공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장애 도시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함.

### (3)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 필요성

○ 서대문구는 이미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정보 매체, 서비스 등 도시 전반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적용이 가능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 또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 증진 및 편의 보장 조례」로 무장애 도시 비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음.

○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을 준수하는 소극적 행정을 넘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나아가야 함.

○ 단순히, 법적 최소 기준의 충족이 아니라, 서대문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도시 계획 흐름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을 구현하는 종합적 도시 전략이어야 함.

## 2) 서대문구의 인구 및 지역 환경 특성

###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

○ 서대문구는 대학가가 인접해 있어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동시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중적 인구구조를 가짐. 서대문구 인구의 1/3이 무장애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나타나며,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도시정책이 노인 복지와 청년의 활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동약자의 절대적 규모가 늘어남을 의미하므로, 서대문구는 향후 더욱 빠르게 증가할 무장애환경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2) 지형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

○ 서대문구는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 풍부한 녹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산 자락길이라는 우수한 무장애 숲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확장 전략이 가능함.

○ 그러나 주거지가 구릉지에 밀집해 있어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지형적으로 구릉지가 많고 주거 밀집 지역의 도로 폭이 좁은 특성상 표준화된 배리어프리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서대문구의 지형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서대문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3) 서대문형 솔루션 제시로 선도적 모델 구축

### (1) '2030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비전' 수립의 필요

○ 법적·정책적 기반, 지역적 특성, 현재 추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대문구는 '2030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비전'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 비전은 서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ESG 경영과 연계하여 다음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 물리적·정보적·심리적 장벽을 동시에 해소하고, 안산·백련산·인왕산 등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되 구릉지 밀집 주거지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서대문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대학가 인접으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와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층이 공존하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으로 기능해야 함.

○ 특히 서대문구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무장애환경 수요 대상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표준화된 배리어프리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의 지형적·공간적·인구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서대문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핵심 전략으로 포함해야 함.

### (2)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결합

○ 서대문구는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도적 무장애 도시 모델을 구축하여 '가장 따뜻하고 스마트한 무장애 도시'라는 선진적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물리적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서 무장애 도시를 자리매김하게 함.

○ 서대문구의 안산·백련산·인왕산 등 자연환경, 대학가 인접성, 역사문화자원 등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무장애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서대문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전략이 될 수 있음.

### (3) 무장애 도시 실현의 전략적 의미

○ 서대문구의 무장애 도시 추진은 국제적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선도적 대응으로서 전략적 의미를 가짐.

□ **국제적 정책 기준 충족 및 선도적 모델 구축**

○ UN-Habitat의 '모두를 위한 도시', WHO의 '고령친화도시' 등 국제적 도시정책 기준을 충족하며, 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기능함.

○ 서대문구의 지형적·공간적·인구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서대문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구릉지 밀집 주거지와 좁은 도로 폭이라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이중적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이는 표준화된 배리어프리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구의 정책적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고령화와 청년 1인 가구 증가라는 이중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안산 자락길 등 우수한 자연자원, 대학가 인접성 등 서대문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서대문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한 체계적 추진**

○ 기존 조례들이 분산적으로 다루던 무장애환경 조성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인식 개선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 무장애 도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통합적 도시 발전 전략임.

# Ⅶ.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분석 및 제개정안

1. 서대문구 무장애환경 관련 조례
2. 서대문구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 1. 서대문구 무장애환경 관련 조례

## 1) 서대문구 무장애 관련 조례 현황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에 무장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직접 연관 조례로 볼 수 있음.

○ 그 외 간접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무장애환경 조성의 연관성은 낮은 편임.

[표 50] 서대문구 무장애 관련 조례 현황

| 조례명 | 제개정일 | 제개정 | 소관부서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21.12.29. | 제정 | 도시계획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2024.08.14. | 일부개정 | 도시계획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6.25. | 제정 | 생활보장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2021.12.29. | 일부개정 | 지역경제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7.11.01. | 일부개정 | 문화체육과 |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서대문구 도시 디자인 정책의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조례로, 2024년 8월 14일 일부개정되었음.

○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자인 정책 전반을 심의하도록 함. 특히 범죄예방 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까지 통합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 심의대상은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과 별표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정하며, 실시설계 완료 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구의원 2명과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서비스·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 디자인, 건축·조경·조명·구조·교통·토목·사회학·정책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됨.

○ 심의는 매 회의마다 해당 분야별 위원 중 10명 이상을 지정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를 의무화하고, 의견 제출 방법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 여부를 알려야 함.

### (2)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21년 12월 29일 제정된 조례로, 공공공간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성격을 가짐.

○ 유니버설디자인을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적용 범위는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1에 따른 시설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설정됨.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함.

○ 별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제9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통합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범사업으로 시범 거리, 시범 건축물 지정 및 보행환경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함.

###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년 6월 25일 제정된 조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임.

○ 편의시설을 "주 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예: 소규모 상가, 식당, 카페 등)로 명확히 한정됨.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비 지원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서대문구 무장애 관련 조례 분석 결과

###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 서대문구는 디자인 관련 심의 기구를 분산 운영하지 않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 제6호와 제7호는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괄하도록 명시함.

○ 이러한 구조는 정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 디자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통합적 관점에서 심의가 가능하게 함.

○ 위원회는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됨. 매 회의마다 해당 분야별 위원 중 10명 이상을 지정하여 심의함으로써 안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 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운영 체계를 갖춤.

### (2)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정책적 역할 분담

○ 「공공디자인 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주로 구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심의를 통한 품질 관리라는 사전 통제 방식을 채택함.

○ 「공공디자인 조례」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하며, 실시설계 완료 전 심의를 의무화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도록 함.

○ 반면 「이동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등편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소규모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함.

○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해 규제가 아닌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하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접근방식을 취함.

○ 이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됨.

### (3) 주민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

○ 「공공디자인 조례」는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를 의무화하고, 의견 제출 방법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피드백 체계를 구축함.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디자인 사업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이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 여부를 알려야 함.

○ 시범사업 선정 시에도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이러한 구조는 하향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4) 정책의 진화: 선언적 도입에서 실질적 지원으로

○ 2021년 제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기본 원칙 제시,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등 주로 공공 주도의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춤.

○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몽적·선도적 성격이 강함.

○ 2025년 제정된 「이동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는 주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명문화함.

○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는 선언적 정책에서 실행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며, 법적 의무 밖에 있는 민간 영역까지 공공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함.

### (5) 법령 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정책 일관성 제고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7조 제3항은 "기본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으로 인한 중복과 불일치를 방지함.

○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 제3항은 진흥계획 수립 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함.

○ 「이동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례 간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제5조 제3항에서 사업비 지원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행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함.

### (6) 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공공디자인 조례」는 심의 대상 제외 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제17조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구 가이드라인·표준디자인·서울특별시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적용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 제3항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가볍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제15조는 소위원회 운영을 허용하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

## 3) 현행 조례 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1) 물리적 시설 중심의 편향성

○ 서대문구의 현행 조례 체계는 물리적 시설 설치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보·서비스·운영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도시계획과 소관)는 건축물, 도로 등 고정된 하드웨어 중심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와 같은 일시적 행사나 인적 서비스(교육, 안내)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생활보장과 소관)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일 뿐, 설치 후의 관리·운영·정보제공을 의무화하지 않음.

○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문화체육과 소관)는 무장애환경 조성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축제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심의할 강제 조항이 없음.

### (2) 통합적 비전 및 추진 체계의 부재

○ 현행 조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무장애환경을 다루고 있으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비전, 추진 전략, 실행 체계를 명시하는 상위 조례가 부재함.

○ 조례 간 연계성은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음.

○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물리적 장벽, 정보 장벽, 심리적 장벽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일시적 행사, 서비스 운영, 정보 접근성 등 현행 조례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임.

# 2. 서대문구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1) 조례(안)의 주요 개요

[표 51]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데 있어 물리적·심리적·정보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 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4.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무장애환경 개선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3. 무장애 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시민 제안 제도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점자, 수어, 음성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또는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무장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등 관광약자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대표
4.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전문가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시민참여단 운영)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또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책, 연구·조사,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제9조, 제10조, 제11조).

□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 "무장애 도시"란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함)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데 있어 물리적·심리적·정보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 환경을 의미함.

○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시설·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함(제2조).

□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무장애 환경 개선 사업,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무장애 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시민 제안 제도,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점자, 수어, 음성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 그 밖에 무장애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함(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

○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함(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부구청장(또는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무장애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 등 관련단체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대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제8조)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기본계획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5조).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의 무장애 환경 개선 사업,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무장애 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시민 제안제도,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점자, 수어, 음성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 그 밖에 무장애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함(제6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등을 포함함(제3조).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제4조).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조).

## (2) 조례(안)의 의의 및 특징

□ **포괄적 무장애 개념의 도입**

○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를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정보적 장벽까지 제거한 도시 환경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편의시설 중심 접근을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을 채택함.

○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점자·수어·음성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

○ 현행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가 주로 물리적 환경 조성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 조례안은 정보 접근성과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정책 범위를 설정함.

□ **통합적 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 구축**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자문하도록 함.

○ 위원회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무장애 관련 분야 전문가, 장애인 등 관련 단체 당사자 및 대표, 도시 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 이는 기존 조례들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특히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규정하여(제8조 제4항), 기존 위원회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무장애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함.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

○ 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 기본계획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공공 및 관련 수·시설 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는 무장애 정책이 일회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제5조 제1항 단서), 별도의 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중복을 방지함.

□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무장애 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및 시민 제안제도를 사업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제6조 제3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함.

○ 이는 하향식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함.

○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1조), 무장애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함.

□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책, 연구·조사,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이는 무장애 정책이 특정 부서의 단독 업무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등 다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횡단적 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현행 조례 체계의 한계 보완**

○ 현행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는 건축물, 도로 등 고정된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와 같은 일시적 행사나 인적 서비스를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일 뿐, 설치 후의 관리·운영·정보제공을 의무화하지 않음.

○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 서비스,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을 포괄함으로써 현행 조례들이 다루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특히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점자·수어·음성안내 등 정보제공 서비스 확충을 명시함으로써(제6조 제4호), 정보접근성 향상을 제도화함.

□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연계성 확보**

○ 조례안은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상위법에서 정한 대상 시설을 포괄하면서도(제2조 제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적용 범위의 유연성을 확보함.

○ 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5조 제1항 단서) 법령 간 정합성을 유지함.

○ 또한 위원회 운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8조 제4항) 별도의 위원회 신설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한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함.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환경 조성 조례(안)

## (1) 조례(안)의 주요 개요

[표 52] 서대문구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환경 조성 조례(안) 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장애환경"이란 물리적 장벽의 제거뿐만아니라 정보 접근성,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등 심리적·절차적 장벽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주최·주관하거나 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및 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매년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전 점검 및 체크리스트 운영 )① 구청장은 축제 개최 전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별표의 '무장애환경 점검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체크리스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 등) 설치 여부
2. 무장애관련 정보(웹사이트, 안내 책자 등) 제공 여부
3. 현장 안내 인력의 배치 및 교육 이수 여부

제6조(정보 접근성의 보장) ① 구청장은 축제 홍보물,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할 때 관광약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 음성, 수어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② 축제 현장에는 관광약자가 식별하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의 위치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제7조(종사자 교육 및 인력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편의 지원 교육을 축제 개최 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축제 현장에는 관광약자의 이동 및 관람을 돕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7조(종사자 교육 및 인력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편의 지원 교육을 축제 개최 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축제 현장에는 관광약자의 이동 및 관람을 돕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구청장은 축제 기획 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관광약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민관협력 및 모니터링)① 구청장은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무장애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및 개선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무장애환경 조성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람약자가 불편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가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함.

### □ 용어의 정의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제2조). "관람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함. "무장애 환경"이란 물리적 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등 심리적·정서적 장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 설치를 넘어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임.

### □ 구청장 및 축제 주최자의 책무

○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주최·주관하거나 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및 행사에 적용됨(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매년 축제 및 행사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 구청장은 축제 개최 전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별표의 '무장애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체크리스트에는 이동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 등) 설치 여부, 무장애 관람 정보(웹사이트, 안내 책자 등) 제공 여부, 현장 안내 인력의 배치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5조).

□ **정보접근성 보장**

○ 구청장은 축제 홍보물,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할 때 관람약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 음성, 수어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축제 현장에는 관람 약자가 식별하기 쉬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의 위치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제6조).

□ **축제 종사자 교육 및 인력 지원**

○ 구청장은 축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편의 지원 교육을 축제 개최 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축제 현장에는 관람 약자의 이동 및 관람을 돕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제7조).

□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 구청장은 축제 기획 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관람 약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8조).

□ **민간협력 및 모니터링**

○ 구청장은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구청장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무장애 환경 모니터링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제9조).

□ **예산 지원**

○ 구청장은 무장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 (2) 조례(안)의 의의 및 특징

□ **일시적 행사의 무장애 환경 조성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공공디자인 조례」는 건축물, 도로 등 고정된 하드웨어 중심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와 같은 일시적 행사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강제할 수 없음.

○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무장애환경 조성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축제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심의할 강제 조항이 없음.

○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라는 일시적 행사에 특화된 무장애 환경 조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조례 체계의 공백을 메움.

○ 매년 기본계획 수립, 사전 점검실시,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축제 기획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물리적·정보적·심리적 장벽의 통합적 제거**

○ 조례안은 "무장애 환경"을 물리적 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등 심리적·정서적 장벽이 없는 상태로 정의함(제2조).

○ 이는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등 물리적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보제공(웹사이트, 홍보물, 안내판 등), 인적 서비스(교육받은 안내 요원 배치), 프로그램 운영(관람 약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임.

○ 특히 정보 접근성 보장 조항(제6조)은 축제 홍보물,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할 때 문자, 음성, 수어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안내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이는 현행 조례들이 다루지 못했던 정보 장벽 제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시각·청각 장애인 등 의사소통 약자의 축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임.

□ **사전 점검 및 체크리스트 의무화**

○ 구청장은 축제 개최 전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무장애 환경 점검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제5조).

○ 체크리스트에는 이동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 등) 설치 여부, 무장애 관람 정보(웹사이트, 안내 책자 등) 제공 여부, 현장 안내 인력의 배치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 포함됨.

○ 이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축제 주최자가 사전에 무장애 환경 조성을 준비하도록 강제하며,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준을 제공함.

□ **축제 종사자 교육 및 인력 지원 체계화**

○ 구청장은 축제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편의 지원 교육을 축제 개최 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조).

○ 또한 축제 현장에는 관람 약자의 이동 및 관람을 돕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 이는 물리적 시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관람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축제 종사자들이 관람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 참여 보장**

○ 구청장은 축제 기획 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관람 약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8조).

○ 이는 관람 약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축제의 적극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규정임.

○ 기존의 접근이 주로 물리적 접근성 확보에 그쳤다면, 이 조항은 관람 약자가 실제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축제를 지향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체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공연, 휠체어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함.

□ **민간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구청장은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무장애 환경 모니터링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 구청장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팀을 통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이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함.

○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축제 주최자에게는 지속적인 개선 동기를 부여함.

□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구청장은 무장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 이는 무장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함.

○ 특히 민간 주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임.

□ **현행 조례 체계와의 보완적 관계**

○ 이 조례안은 기존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등이 주로 고정된 물리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시적 행사인 축제 및 행사에 특화된 규정을 둠으로써 현행 조례 체계의 공백을 메움.

○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도시 전체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

○ 양 조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서대문구의 무장애 환경 조성 정책은 고정된 시설(건축물, 도로 등)과 일시적 행사(축제, 행사 등)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체계를 갖추게 됨.

# 부록 :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 무장애환경 체크리스트

1. 무장애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2.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청각장애체험관 견학

## 1.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축제의 무장애환경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1) 공통 점검항목

| 분야 | 항목 | 점검사항 | | 비고 |
|---|---|---|---|---|
| | | O | X | |
| 접근성 | 주요 동선이 1.2m 이상 확보되었는가? | | | |
| | 진입로 및 내부 통로 단차가 2cm 이하로 유지되었는가? | | | |
| | 바닥이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었는가? | | | |
| | 경사로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계단과 단차부에 경사로 대체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안내 표지판에 점자·글자·그림 등이 적용되었는가? | | | |
| |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었는가? | | | |
| | 이동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이 없는가? | | | |
| | 외부로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가? | | | |
| | 비상시 쉽게 대피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 | | |
| 안전관리 | 안전 표지·경고 문구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응급대처시설(AED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소화기 등 화재예방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가? | | | |
| | 관람객 동선과 차량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가? | | | |
| | 임시시설물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가? | | | |
| | 대피 경로와 비상구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 | | |
| | 야간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관리자가 비상 연락망을 숙지하고 대응 가능한가? | | | |
| | 재해취약계층 관련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 | | |

| 분야 | 항목 | 점검사항 | | 비고 |
|---|---|---|---|---|
| | | O | X | |
| | 휴게공간(벤치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장애인 주차장 및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장애인 안내데스크 또는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대기공간, 충전구역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정보제공 | 다양한 방식(글, 소리, 점자 등)으로 정보가 제공되는가? | | | |
| | 홍보자료 및 웹사이트에 무장애환경 정보가 안내되는가? | | | |
| | 의견접수·민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 | |
| 관리 | 종사자 및 관리자가 무장애환경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가? | | | |
| |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이 공개적으로 안내되는가? | | | |

## 2) 전통시장 점검항목

| 분야 | 항목 | 점검사항 | | 비고 |
|---|---|---|---|---|
| | | O | X | |
| 이동환경 및 안전 | 시장 내 통로가 물품 적치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항상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바닥 청결이 유지되고 배수로가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전통시장의 출입구 및 주요 입구가 장애인 접근에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시장 내 계단 및 경사로에 손잡이와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적절한 위치에서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 | |
| | 노점상 및 임시 가설물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 | |
| | 시장 내 전기 및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시장 내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어 야간에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가? | | | |
| | 분실물 보관소, 안내데스크 등 기본 편의시설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출입구 주변에 휠체어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관리체계 및 서비스 |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사업장 내 무장애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는가? | | | |
| |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무장애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가? | | | |
| | 고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무장애 환경 홍보와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 | | | |
| | 긴급 상황 시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가? | | | |
| |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 | |
| | 시장 내 장애인정보 안내서 및 지도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불편 신고 및 개선 요구를 위한 피드백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분야 | 항목 | 점검사항 | | 비고 |
|---|---|---|---|---|
| | | O | X | |
| | 고객 이동 동선과 차량 동선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 | | |
| |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 | | |
| | 무장애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및 장애물이 신속히 정비되고 있는가? | | | |

### 3) 축제 점검항목

| 분야 | 항목 | 점검사항 | | 비고 |
|---|---|---|---|---|
| | | O | X | |
| 이동환경 및 안전 | 축제장 입구와 출구가 장애인 접근에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
| | 임시 가설물(무대, 천막, 좌석 등)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관람객과 차량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 | | |
| | 응급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접근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장애인 안내 및 의사소통 지원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가? | | | |
| | 축제장 내 경사로와 이동로에 손잡이 및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야간 행사 시) 야간 조명이 충분하여 어두운 장소 없이 안전한가? | | | |
| | 비상 출입구 및 비상 피난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행사장 내 장애인용 주차 공간과 셔틀버스 등 교통편이 제공되고 있는가? | | | |
| | 관람객 혼잡 구간에 장애인 우선 통행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관리체계 및 서비스 | 장애 유형별 참여 가능한 체험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축제 관련 무장애 환경 홍보 및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판 및 홍보물이 충분히 설치되었는가? | | | |
| | 무장애 관련 정보가 축제 홈페이지 및 현장 안내소에 잘 제공되고 있는가? | | | |
| | 행사진행 중 장애인 불편사항 접수 및 즉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분야 | 항목 | 점검사항 | | 비고 |
|---|---|---|---|---|
| | | O | X | |
| |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 의견 수렴 및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특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별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 | |
|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장애 환경 관련 점검 및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행사장 내 안전요원이 무장애 환경 안내 및 지원 교육을 받았는가? | | | |
| | 친환경·안전 요소가 반영되어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가? | | | |

# 2.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청각장애체험관 견학

## 1) 견학 개요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는 2025년 9월 3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남가좌동 270-1)에서 청각장애체험관 견학을 실시함.

○ 견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과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활동계획서(2025년 3월 21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승인)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의 무장애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도 증대를 목적으로 함.

[표 53]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견학 및 프로그램 체험 모습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 colspan="2">※ 출처 : 서대문구의회 제공</td>
</tr>
</table>

## 2) 청각장애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 참석자들은 영상체험관, 소통체험관, 청각장애이해관, 동행결심관 등으로 구성된 청각장애체험관 프로그램을 체험함. 청각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청각장애 체험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짐.

○ 특히, 독화 체험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였으며, 지화명함 만들기, 지문자(한글을 손으로 나타내는 것)로 이름 써보기,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여 저금하는 '좋은소리저금통'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경험함.

## 3)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계자 간담회

○ 간담회에는 김연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 이성희 사무국장, 복지관 이용 농아인 2인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공유함.

○ 상인과의 소통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됨. 번잡한 시장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통용되기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거나 거스름돈이 적절한지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함.

○ 주차 등 쇼핑 편의성 문제도 제기됨. 장애인 주차공간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쇼핑 후 배달이 어렵다는 점 등 쇼핑의 편의성 부족 문제가 지적됨.

○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됨. 청각장애인 특성상 수화를 하며 이동하는데, 주변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변 시설과 충돌 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54]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와 간담회 모습

※ 출처 : 서대문구의회 제공

## 4)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설 라운딩

○ 참석자들은 문화·체육시설, 식당 등 농아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 전반을 점검함. 특히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체육활동 공간 등 농아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사례를 파악함.

## 5) 정책적 시사점

○ 이번 견학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의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지원, 정보접근성 강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함.

○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적 안내체계 강화,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상인 대상 장애 인식 교육 등이 실질적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구됨. 이러한 현장 의견은 향후 서대문구의 전통시장 및 지역축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1 건영빌딩 5층
TEL. 02-336-0619 FAX. 02-336-0619